제주4·3 70년

어둠에서 빛으로

제1부

제주4·3진상규명 운동과 탄압

–

제2장 한국의 민주화 열풍과 4·3운동의 전개

제2절 4·3예술 활동과 교육

제주4·3평화재단
JEJU43PEACE FOUNDATION

제2절 4·3예술 활동과 교육

1. 4·3예술 활동의 수난과 성과

1) 1970년대 중반까지의 4·3예술 개요

4·3예술은 제주4·3사건이 진행되던 시기에도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4·3의 와중에서 4·3을 다룬 시·소설·희곡 등이 창작되었고, 관련 노래도 불리어졌으며, 연극 공연도 있었다.

이수형의 시 「산(山)사람들」이 1948년 7월 간행된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 제8호에 수록되었으며, 강승한의 서사시 「한나산」과 조규창의 시 「제주도 빨찌산들에게 영광을 드린다」는 각각 1948년 9월과 1950년 4월에 북한에서 발표되었다. 이수형의 「산사람들」은 입산 투쟁하는 제주민중들의 결연한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제주도 인민 유격대 용사들에게 올리노라'라는 부제가 붙은 강승한의 「한나산」은 미제국주의의 횡포에 맞선 무장투쟁의 양상을 그리는 가운데 인민공화국 수립을 전제로 한 통일 운동의 관점을 드러내었으며, 조규창의 「제주도 빨찌산들에게 영광을 드린다」는 '4·3봉기 2주년에'라는 부제가 말하는 바와 같이 봉기 2주년을 맞아 빨치산 투쟁을 찬양하며 그 의의를 강조하는 작품이다. 소설의 경우 허윤석의 단편 「해녀」가 1950년 2월 『문예』에 실렸는데, 토벌군으로 제주에 들어온 부대가 작전 수행 중에 겪는 일련의 사건들을 피상적으로 다룬다.

함세덕의 희곡 「산사람들」도 1949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북한의 문예지 『문학예술』에 4회 분재되었다. 제주 민중들이 미군정의 탄압에 맞서 입산하여 무장투쟁을 벌이는 과정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면서 반미통일 투쟁으로서의 4·3의 의미를 부각시킨 작품이다. 「산사람들」은 문예지 수록을 전후하여 해주(1948년)와 평양(1949년, 1950년)의 무대에서 공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제주에서는 1952년 6월 제주극장에서 「밝아오는 한라산」(일명 '김봉길 참회기')이 공연되기도 했는데, 이는 반공적인 내용이었다.

영화도 4·3의 와중에서 창작되고 상영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미군정에서 촬영한 「제주도 메이데이」 2편과 '잔비 토벌 작전의 기록영화'인 「한라산에 봄 오다」(1953) 등이 있다. 제주신보에는 이 영화가 50분 분량으로 제주도 경찰국에서 제작했으며 백명현·오 권이 감독을 맡고 이경진이 감수했다고 보도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4·3사건이 남긴 잔비 떼가 읍내 방송국까지 침입하여 재준동을 시작한 작년 가을 이 국장이 잔비 토벌의 특명을 받고 착임 이래 적의 주력이 완멸될 때까지의 투쟁의 기록인데 전편을 통하여 정서 풍부한 남쪽 나라의 평화 풍경이 수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1953. 12. 17). 1967년에도 반공영화 「한라산」(1967)이 제작되었다.[1] 미국 공보원에서 4·3 관련 문화 영화로 「산」(1961)을 제작했다는 증언도 있다. 원제가 「한라산」이었으나 제작이 끝나면서 「산(더 마운틴)」으로 바뀐 이 영화는 45분 분량으로 만들어져 세계 48개국에 홍보물로 유포되었다. 당시 사범학교를 나와 조천국민학교에 근무하던 홍성중 교사는 이덕구역을 맡아 출연하였다. 교래리 세트장, 경남 상남시 미공보원 촬영소 등지에서 6개월 정도 촬영했다고 한다.[2]

4·3 당시에는 임 화 시에 김순남이 곡을 붙인 「인민항쟁가」(1946), 박기동 작사 안성현 작곡의 「부용산」(1948), ‘날아가는 가마귀야’로 알려진 「추모가」 등의 노래가 무장대와 주민들에 의해 많이 불려졌다. 토벌대의 선무 활동과 관련하여 입산자들의 하산과 귀순을 종용하는 노래들도 보급되었다. 「돌아와요 돌아와」(이기형 작사, 김종철 작곡, 1948), 「그리운 그 옛날」(이기형 작사·작곡, 1948) 등이 그러한 노래들이다.

4·3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간간이 4·3과 관련된 작품들이 주로 문학에서 발표되었다. 우선 오영수의 「후일담」(1960), 곽학송의 「집행인」(1969), 박화성의 「휴화산」(1973) 등 외지 출신 작가들의 소설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일련의 소설에 나오는 4·3은 별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대부분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피상적 취재를 근거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제주 출신이 쓴 4·3소설로는 전현규의 「4·3아(兒)」(1964), 오성찬의 「하얀 달빛」(1971)·「잃어버린 고향」(1976)과 현기영의 「아버지」(1975) 등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삽화나 배경적 요소로 4·3을 다루거나 사태를 추상화시켜버린 작품들이었다. 제주 출신의 시로는 김대현의 「고향」(시집 『청사』(1954)에 수록)과 김종원의 「봉개동」(시집 『강냉이 사설』(1970)에 수록)이 눈에 띈다. 지난 시대의 비극적 사태에 대한 짙은 한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지만, 4·3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 아직 냉전적 공식역사의 위력에 완전히 압도당해 대항담론이 거의 표면화되지 못하던 시기였던 것이다.

1)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2006, 179쪽.

2) 허영선, 「“이덕구의 나쁜 모습만 그려냈었지요”」, 제민일보, 1992. 1. 27.

결국 그것이 4·3진상규명 운동과 연관되는 예술 활동으로 전개된 것은 현기영의 중편소설 「순이 삼촌」(1978)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4·3 담론이 금기의 영역에 묶여 있던 시기에 문학을 비롯한 예술에서는 학술논문이나 언론은 물론 여타 사회운동 세력에 앞서 4·3의 진실을 향한 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나갔다.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탄압이 있었지만, 진실을 향한 예술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4·3의 진상에 대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2) 소설 「순이 삼촌」의 위력과 파장[3)]

유신 말기, 4·3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세상에 나왔다. 1949년 1월 17일 2연대에 의해 북촌리 주민 400여 명이 학살된 사건을 다룬 현기영의 중편소설 「순이 삼촌」이 수많은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것이다. 4·3이 발발한 지 꼭 30년이 되던 시점인 1978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발표된 이 소설은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된 4·3에 대한 굳건한 금기의 벽을 허물어트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발표 지면이 유력 문예지였기에 전국의 많은 독자들이 제주도에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

「순이 삼촌」은 금기의 영역에 과감한 도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양심의 표현'이요 '용기의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4)] 아직 유신정권의 서슬이 시퍼런 시점에서 군인에 의한 집단 양민학살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웬만한 양심과 용기로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작중인물의 입을 빌려 제주도 민중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제 당당히 증언해야 할 때임을 역설했다.

「순이 삼촌」은 제주 민중들 사이에서 발화되던 '식겟집 문학'의 위력이 제도권 문학의 형식으로 현현(顯現)된 증언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4·3담론을 구전문학에서 기록 문학으로 전환한 소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작품 자체도 집단 양민학살의 참상과 그 상흔을 제삿집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에 의해 드러내는 형식으로 구현된다.

이 작품에서 제삿집의 사람들은 4·3과 관련하여 몇 부류로 구분된다. 제삿집에 둘러앉은 사람들(큰아버지·큰당숙·작은당숙의 경우와 길수·상수의 경우는 다소 입장 차이가

3) [제1부 제1장] 제2절-2. 4·3의 금기와 연좌제 참조(편집자 주).

4) 송상일, 「기록과 용기」, 『시대와 삶』, 문장, 1979, 201~207쪽.

있다.)과 참석하지 못하거나(순이 삼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상수의 아내)을 통해 4·3의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조명되고 있다. 그들이 각기 처한 상황과 발언 또는 인식을 통해 4·3의 비극성과 함께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순이 삼촌」에는 공동체의 파괴와 4·3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공동체는 지역적인 의미와 자연생태적인 의미로 나타난다. 전자는 지역공동체를 무너뜨린 게 외부세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온전한 복원을 꿈꾸는 형식으로 제시되며, 후자는 4·3의 광풍이 제주자연의 생태질서를 크게 훼손하였음을 꼬집으면서 무채색과 붉은색의 이미지로 사태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항들은 각기 작품 속에 적절히 녹아들면서 독자를 힘있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시종일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가운데 작품에 몰입해 들어감으로써 묻혀 있던 진실을 복원코자 하는 작가의 의도에 자연스럽게 호응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순이 삼촌」은 탄탄한 작품성을 견지하면서 4·3진상규명을 향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낸 기념비적인 작품이 된 것이다.[5)]

현기영은 1975년 「아버지」라는 단편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다. 「아버지」에도 4·3의 상황이 깔려 있긴 하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은 아니었다. 그런데 등단한 시점은 유신 시대였기에, 그는 지식인으로서 반역사적이고 역사 퇴행인 유신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미학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그런 현실에서 등단하여 펜대를 쥐게 되니 4·3이 정면으로 의식의 지평으로 떠올랐다. 제주도 출신으로서 4·3에 대해 쓰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여겨졌다.

현기영은 등단 후 조천면 북촌리 출신의 고교 동창에게 북촌리 학살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 동창의 소개로 북촌리 사람들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다. 처음에 주민들은 4·3에 대해 말하지 않고 울기만 하였다. 그래서 현기영은 자신도 울면서 “아니, 나중에 저승 가서 식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을 무슨 면목으로 보젠 햄수과? 그때 어떤 젊은 작가가 와서 발루와보젠(밝혀보겠다고) 찾아갔는데 말을 안 했다 하면, 저승에 가서 그분들을 무슨 낯으로 대허젠 햄수과?”라고 말하니, 서서히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가 북촌리를 직접 취재한 시기는 주로 1977년 말에서 1978년 초의 겨울방학 기간이었다. 주요 취재원은 홍순식, 김석보 등이었다. 홍순식은 좀 진보적으로 얘기하였고, 김석보는 학살 현장의 모습을 리얼하게 증언해 주었다고 한다. 작품에서는 북촌마을이 서촌마을로 이름이 바뀌

5) 김동윤,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 방식」,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107~136쪽.

어 나왔지만, 대부분 북촌리 학살사건의 전모와 일치한다.

순이 삼촌이라는 작중 인물은 외할머니 쪽으로 먼 친척이었던 노형마을의 현정자라는 여인을 모델로 탄생했다. 그 여인은 4·3 때 남편을 잃고 딸아이를 홀로 키웠는데, 파출소 앞을 지나가기 두려워하는 등 신경증을 앓고 있었으며, 결국 밭(작품에서처럼 학살 장소인 것은 아님)에서 사이나라는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기영이 부부교사여서 육아에 힘이 부치니 외할머니가 서울로 보내 함께 살기도 했다. 이런 노형의 여인을 북촌리 사건의 한복판에 있던 여인인 순이 삼촌으로 변형하여 창조해낸 것이었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당초에는 『소설문학』에 투고된 작품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싣지 못하겠다고 하자 다시 보낸 곳이 『창작과 비평』이었다. 작품을 읽은 평론가 염무웅(당시 창작과비평사 사장)은 그 내용에 크게 놀란 가운데 수록을 결정했다고 한다. 「순이삼촌」은 「해룡 이야기」(1979), 「도령마루의 까마귀」(1979)와 함께 현기영의 초기 4·3소설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세 작품은 1979년 11월 그의 첫 소설집 『순이 삼촌』에묶여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되었다.[6)]

이 소설집이 발간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필화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건으로 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전국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단속하고 있던 11월 24일에 이른바 위장 결혼식 사건이 터졌다. 명동 YMCA회관에서 열린 위장결혼식에서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해직교수협의회, 제적 학생 등이 중심이 되어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신 정부의 퇴진과 거국 내각 조직을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곧 경찰이 들이닥쳐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연행되었다. 그날 지인들에게 줄 소설집 『순이 삼촌』을 들고 행사장에 참석했던 현기영은 무사히 귀가했으나, 이틀 뒤 직장인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연행되었다. 처음에 중부서로 연행되었다가 서빙고동 보안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인계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순이 삼촌」을 빨갱이 작품으로 몰아붙인 것이었다. 현기영은 합동수사본부 지하실에서 3일 동안 주야로 고문당한 뒤 피멍이 사라질 때까지 20일간 포고령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1980년 8월 21일 여름방학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던 현기영은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순이 삼촌』이 한 달 만에 재판을 찍었으니, 경찰 입장에서는 불온문서가 계속 유통된다고 보았던 것이었다. 제주도 가서 은사나 친구들을 만나면서 조사하

6) 김동윤, 「"4·3을 쓰면서 울기도 했어"」(현기영 대담), 『소통을 꿈꾸는 말들』, 리토피아, 2010, 132~158쪽.

고, 중앙 문단과 출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조서가 높이 쌓여 있었다. 폭력적인 고문은 하지 않고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끝내면서 수사관은 소설집을 판매금지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소설집 『순이 삼촌』은 판매금지 도서가 되어 전국 서점과 도서관으로부터 회수되면서 금서(禁書)로 묶이게 된 것이다.[7)]

『순이 삼촌』이 금서가 되면서 수년 동안 여러 사건이 이어졌다. 제주도내 대학문학동아리 '신세대'에서는 1983년 4·3문제를 시극으로 준비했는데, 당시 공연에 올리려던 작품은 「섣달 열여드렛날 밤에」로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각색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공연은 사전에 정보기관에 알려지는 바람에 무대에 올리지는 못했다. 그해 말에는 제주대생 김정렬(2학년)이 동아리 수련회에서 「순이 삼촌」을 거론하며 문학의 현실 참여를 강조했다는 이유로 강제 징집되는 사건도 있었다.[8)]

대학신문에서도 「순이 삼촌」이 문제가 되었다. 제주대학교의 제대신보(현 제주대신문)에서는 「순이 삼촌」으로 인해 신문이 모두 불태워지기도 했고, 검열에 걸려 기사가 사장된 적도 있었다.

제대신보는 1983년 7월 30일자(제232호) 신문 4면 하단 광고란에 여름방학에 즈음



[그림 1] 『순이 삼촌』을 광고에서 지운 후 다시 찍은 제대신보

7) 신동호, 「문학 뒤 역사: 변죽을 쳐서 복판을 울리다」, http://blog.kdemo.or.kr

8) 당시 신세대 회원이던 강덕환·강봉수·오승국의 증언.

하여 ‘방학 중 읽어볼 만한 교양도서들’이라는 제목으로 추천도서들을 소개했다. 황석영의 『객지』, 백낙청의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이두현의 『한국의 탈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등 70여 권이 거기에 선정되었다. 그런데 수천 부의 신문을 인쇄한 직후 사건이 터졌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학생편집책임자였던 김계춘(현재 제주 매일 주필) 등을 호출한 것이다. 소개된 책 중에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끼어 있다는 게 문제가 되었다. 안기부에서는 “『순이 삼촌』이 불온서적인 것을 모르고 신문에 실었느냐”며 배포 금지를 요구했다. 만약에 그대로 배포된다면 발행인인 총장까지 문제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학생기자들은 그 신문은 모두 불태워야 했다. 그리고 『순이 삼촌』 부분만 삭제하고서 다시 인쇄를 한 후에 배포되었다. 다시 인쇄된 신문을 보면 창작과비평사의 다른 책들과 저자가 소개되는 부분에 한 줄이 비어 있음이 확인된다. 금서인 『순이 삼촌』으로 인해 작은 글자로 그걸 소개한 신문이 배포 금지되는 운명을 맞았던 것이다.(김계춘 증언).

이듬해인 1984년 학생기자이던 김건일(현재 한라일보 사장)은 복사본으로 「순이 삼촌」을 읽은 후 서울에 가서 작가 현기영과 만나 인터뷰 형태의 기사를 썼다. 4·3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아예 금기된 시절이어서 제주 출신 소설가와의 만남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쓰고 행간에 담긴 4·3의 의미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주간교수의 검열을 거치면서 다소 자극적인 표현은 빼고 다듬어 조판까지 끝냈으나, 총장이 인쇄 직전에 전체 기사를 확인하는 최종 결재 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다. 총장이 그 기사를 도저히 실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기사 곳곳에서 4·3을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 기사는 사장되고 말았다.(김건일 증언).

그렇게 정치권력은 작가 현기영에게 폭력을 가하고 『순이 삼촌』을 금서로 묶어놓았지만, 일단 금이 가기 시작한 공식역사의 거대한 벽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틈을 비집고 들어선 대항담론의 성장에 따라 점차 무너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순이 삼촌」은 문학을 넘어 모든 4·3예술 혹은 4·3 운동에서 확고한 전범(典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4·3에 관련되어 예술, 학문, 사회운동을 하는 이들 중에서 「순이 삼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4·3문학

(1)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1978~1987)

① 전개 양상

「순이 삼촌」으로 금기의 벽이 무너지면서 4·3문학은 1980년대에 들어 봇물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현기영의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동년배 작가인 오성찬과 현길언이 드러내기 방식의 창작에 함께 나섰다.

현기영은 『순이 삼촌』으로 필화 사건을 겪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4·3소설을 발표하였다. 「길」(1981), 「잃어버린 시절」(1983), 「아스팔트」(1984) 등은 사태의 비극성과 치유되지 않는 상흔에 대한 고발과 증언이라는 점에서 그의 첫 작품집과 맥을 같이 하는 작품들이다.

1970년대에 피상적이나마 4·3을 작품화했던 오성찬은 1980년대에 좀 더 구체적으로 4·3을 추적한다. 그의 「사포에서」(1982), 「풀무에 관한 보고」(1984), 「공동묘지에서」(1984), 「크는 산」(1984), 「단추와 허리띠」(1986), 「표해」(1986), 「덫에 치인 세월」(1986) 등에서는 다양하게 확인되는 4·3의 진실을 포착하려 했으면서도 대체로 작품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경향이 많았다.

현길언은 「귀향」(1982), 「우리들의 조부님」(1982), 「지나가는 바람에」(1984), 「먼 훗날」(1984), 「신열」(1984), 「우리들의 어머님」(1985), 「꿩 울음 소리」(1985), 「불과 재」(1985), 「껍질과 속살」(1986), 「미명」(1987) 등에서 4·3을 소설화했다. 현길언의 작품들은 4·3의 비극적 상황을 그려내면서도 작품의 주조는 그 진상규명보다는 역사와 이념에 희생된 개인적 진실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되었다.

시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4·3작품들이 1980년대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김수열과 이산하 그리고 문충성과 김광협의 작품을 거론할 수 있다. 특히 이산하는 현기영에 이어 두 번째로 4·3문학 필화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김수열은 진상규명을 향한 뚜렷한 인식을 토대로 4·3을 형상화했는데, 이런 그의 태도는 시인으로서는 선구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장」(1983), 「아버지의 그림」(1984), 「낙선동」(1984), 「들국화」(1985), 「조천 할망」(1985), 「국밥 할머니」(1986), 「사월의 바람은」(1986) 등을 통해 민중 수난상을 형상화하는 가운데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가다듬어 나갔다. 그의 이런 목소리는 6월 항쟁 이후 제주문화운동협의회 활동, 놀이패 한라산 활동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천되어 나타나게 된다.

문충성은 『수평선을 바라보며』(1979)에 실린 「연가·8-어린 날의 동구를 찾아」와 『술래잡기』(1987)에 수록된 「허수아비의 시·21-불에 대하여」에서 어린 날의 기억 속에 있는 4·3의 편린을 더듬는다. 김광협의 제주어(濟州語) 시집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에는 「어멍 아방 죽어그네」, 「저 산의 전기고장은」 등의 4·3시가 수록되어 있다. 4·3에 희생된 양민들의 모습에 주목하면서도, 그 책임을 무장대(작품에서는 '산폭도'로 표현)에 돌리는 데서 본다면 아직 공산폭동론이라는 공식 역사에 갇혀 있는 한계도 드러낸다.

이처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증언문학의 성격이 매우 강했고, 소설이 4·3문학의 중심에 있었다. 「순이 삼촌」을 기점으로 현기영·오성찬·현길언 등 세 작가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4·3에 대해, 특히 4·3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상흔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직된 정치적·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4·3의 원인과 성격 등을 정면에서 과학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특히 가장 민감한 좌우 이데올로기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4·3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았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다른 분야의 대항담론이 거의 부각되지 않고 잠재해 있던 시기여서, 상징적 체계인 문학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이산하 필화 사건[9)]

6월 항쟁 이전 단계에서는 그 막바지에 발생한 이산하의 필화 사건을 각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3월 이산하의 장편서사시 「한라산」이 무크지 『녹두서평』 창간호에 발표되자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내용이 격정적이고 선동적인 면이 있어서 전국 대학가에 충격파를 주기에 충분했다. 당국은 용공·반미의 내용을 담았다며 이산하(본명:이상백) 시인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고무찬양) 혐의로 수배했다. 그는 몇 달 동안의 도피 끝에 그해 11월 검거되고 1988년 4월 4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필화 사건으로 녹두출판사의 김영호 대표와 신형식 편집장 등 여러명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는 이산하 시인에 대한 석방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산하는 1988년 10월 3일 개천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다.

이산하는 일본 쪽 4·3자료를 입수하여 밤새워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한라산」을 썼다고 한다. 그가 읽고서 저본으로 사용한 일본 쪽 자료는 김봉현의 『제주도 피의

9) [제3부 제1장] 제1절-2. 필화 사건 참조(편집자 주).

역사: ‘4·3’무장투쟁의 기록(濟州島血の歷史: ‘4·3’武裝鬪爭の記錄)』이다.(이산하는 김봉현·김민주 공저의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가 저본이라고 했지만, 여러 정황과 근거로 볼 때 그가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 피의 역사』를 저본으로 삼고 다른 자료들도 참조하면서 김형수 시인의 도움을 받아 5개의 장과 25개의 절로 이뤄진 1300여 행의 장편서사시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이산하의 「한라산」인 것이다. 4·3을 반미 인민항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작품은, 전두환 정권 말기의 반미투쟁과 연결되는 ‘운동적 방식’이라는 지향점을 지니고 있었다. 경북 출신의 20대 시인이던 이산하는 민중의 수난 양상보다는 단선반대와 반미통일 투쟁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4·3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상에서 볼 때는 다소 돌출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10)]

이산하는 석방된 지 2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제주를 찾았다. 「한라산」 2부를 쓰려고 체험자의 증언을 듣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는 그는 제주신문 김종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4·3에 관심을 갖고 「한라산」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한국 현대사의 질곡인 미국의 본질에 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썼고 또한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저항 전통을 재생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라산」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으나 철저히 민중적 관점에서 천착하지 못했”기에 “그대로 이어나갈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했다.[11)] 하지만 이산하는 「한라산」 2부를 쓰지 못한 채, ‘복원판’이라고 이름 붙인 『한라산』을 내는 데 그쳤다.

(2) 본격적 대항담론의 전개(1987~1999)

① 전개 양상

4·3문학은 1980년대 후반에 비교적 여러 겹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본격적 대항담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6월 항쟁 이후 4·3에 관련된 연구소, 논문, 증언집, 자료집, 신문연재물, 추모제(위령제) 등이 속출한 현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재일작가 김석범의 소설 『화산도』 등이 1988년에 번역 소개되었고, 북한작가 김일우의 『섬사람들』도 같은 해에 남한에서 출판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이들 작품들이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반미·반제국주의적 시각을 견지한 점은 4·3문학 전반에 적잖은 자극이 되었다.

10) 김동윤, 「민족과 지역, 당위와 현실의 거리」,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205~233쪽.

11) 김종민, 『제주를 찾은 서사시 「한라산」의 시인 이산하 씨』, 제주신문 1988. 12. 26.

이 시기에는 현기영·현길언·오성찬 등의 4·3형상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고시홍·한림화가 본격적으로 4·3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또한 김석희·오경훈·김관후·이석범·정순희·홍양순·김창집·함승보 등이 6월 항쟁 이후 새로이 4·3소설을 발표하였다.

「무혼굿」(1987), 「집 없는 혼」(1988), 「미로여행」(1988), 「깊은 적막의 끝」(1989), 「어떤 비밀」(1990) 등에서 4·3의 작품화를 계속하던 현길언은 장편 『한라산』을 통해 그 총체적 형상화를 시도한다. 오성찬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작품 전반을 통해 4·3을 다루려는 경향이 많아진다. 「한라구절초」(1988), 「바람의 늪」(1989),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1988), 「보춘화 한 뿌리」(1989), 「표류하는 세월」(1991) 등의 작품들이 6월 항쟁 이후에 4·3을 다룬 오성찬의 소설들이다. 현기영의 경우 한동안 4·3소설을 발표하지 않다가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면모로 그 작업을 재개하여 주목받는다. 「거룩한 생애」(1991), 「목마른 신들」(1992), 「쇠와 살」(1992), 「마지막 테우리」(1994) 등은 그 새로운 모색의 산물이다.

고시홍은 제주사람들의 상흔을 형상화하는 데에 많은 비중을 둔다. 「도마칼」(1985)에서는 4·3 때의 충격적인 망령으로 인해 어머니가 발작을 일으켜 식칼을 들고 헤매는 현실을 그렸으며, 4·3취재를 하려다가 좌절하는 언론인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계명의 도시」(1989)는 그 진상규명 작업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해야 솟아라」(1987), 「저승문」(1989), 「유령들의 친목회」(1989), 「자서전 고쳐 쓰기」(1991), 「작은 모스크바」(1994) 등에서도 민중수난사적 입장에서 4·3을 다루었다. 한림화는 「매고일지」(1987), 「여정들」(1993) 등에서 제주여성 수난사의 한 부분에서 4·3을 그렸다. 김석희의 「땅울림」(1988)에서는 4·3 때 입산했다가 사태가 끝났음을 모른 채 36년간 숨어살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무리들은 4·3 당시에 '탐라공화국'을 꿈꾸기도 했다고 증언한다. 오경훈은 「당신의 작은 촛불」(1988), 「세월은 가고」(1989) 등에서 민중수난과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차분히 4·3을 다룬다. 김관후는 「저 섬에 불던 바람」(1995)을 통해 4·3과 관련된 미국의 횡포를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반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3소설의 장편화 경향은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그것은 4·3을 종합화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4·3을 장편화한 작품은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1991)이다. 이 소설은 1947년 '3·1사건'에서부터 1949년 6월초 봉기 지도자인 이덕구가 죽는 시점까지를 일지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현길언의 『한라산』(1995~1997)은 해방 직전 상황부터 1949년 8월 해주대

회까지의 양상이 다뤄진다. 특히 미국의 움직임 등 4·3전사(前史)를 다각적으로 조명하는가 하면, 여러 부류의 제주인들을 등장시켜 그들이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지를 밀도 있게 형상화하였다. 오경훈의 『침묵의 세월』(1997)은 1948년 6월부터 계엄군의 토벌작전이 절정에 이른 12월까지 한 젊은이가 무장대로 활동하면서 겪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시에서도 여러 부류의 시인들에 의해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잇달아 발표 되었다.

김명식과 김관후는 반제국주의적 시각을 드러낸 점에서 여타 시인들과는 차별적이다. 김명식은 『유채꽃 한 아름 안아들고』(1989)·『한락산』(1992)·『한락산에 피는 꽃들』(1994) 등 4·3민중항쟁 연작시집들과 『제국의 굴레』(1989)·『낫과 호미』(1989) 등의 시집을 통해 반미·민족해방투쟁으로서의 4·3의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킨다. 김관후도 시집『섬곶 떠난 내 아비』(1996)에서 같은 맥락의 입장을 표명한다.

김용해는 『민중일기』(1989)와 『아버지의 유언』(1998)에서 집중적으로 4·3을 다루었는데, 수난사적인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했다. 문충성은 『방아깨비의 꿈』(1990)·『설문대할망』(1993)·『바닷가에서 보낸 한철』(1997) 등 여러 시집에서 소년기의 체험이 기조가 되어 서정성과 조화를 꾀하는 가운데 4·3을 구체화한다. 김경홍의 『인동꽃반지』(1999)는 4·3의 한복판을 꿰뚫는 파란만장한 질곡의 가족사를 통해 4·3의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는 연작시집이다. 강덕환의 『생말타기』(1992), 김경훈의 『운동 부족』(1993), 김수열의 『어디에 선들 어떠랴』(1997), 문무병의 『엉겅퀴꽃』(1999) 등에 실린 작품들은 모두 치밀한 취재를 바탕으로 운동의 차원과 연결하면서 작품을 썼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오승철의 『개닦이』(1988), 고정국의 『진눈깨비』(1990)·『겨울 반딧불』(1995), 김광렬의 『가을의 시』(1991)·『희미한 등불만 있으면 좋으리』(1999), 김석교의 『넋 달래려다 그대는 넋 놓고』(1999), 김순남의 『돌아오지 않는 외출』(1997)·『남몰래 피는 꽃』(1999), 양영길의 『바람의 땅에 서서』(1999), 홍성운의 『숨은 꽃을 찾아서』(1998) 등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4·3을 성찰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해원을 도모하는 작품이 많다.

희곡에서도 4·3을 형상화하기 시작했다. 장일홍은 3·1사건에서부터 1949년 6월까지 한 마을에서 진행되는 4·3의 전개 양상을 재현한 장막극인 「붉은 섬」(1991)을 비롯해서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1988)·「강신무」(1990) 등을 발표했고, 김경훈의 「헛묘」(1991)·「꽃놀림」(1992)·「살짜기 옵서예」(1993)·「마지막 빨치산」(1998)·「격랑의 자서전」(1999) 등은 모두 마당극 대본들인데, 4·3의 실체에 접근함과 아울러 4·3진상규명 운동의 대중화에 힘쓰고자 하는 의도가 표출된다. 강용준의

「폭풍의 바다」(1993), 하상길의 「느영 나영 풀멍 살게」(1995), 문무병의 「동이풀이」(1997) 등도 4·3을 형상화 한 희곡들이다.

이렇듯 6월 항쟁 이후 4·3 논의가 봇물처럼 터지면서 4·3문학도 모든 장르에서 본격화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전 단계의 문학에 비해서 독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역사기록물 등이 그동안 4·3문학이 맡고 있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그 변화된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② 김석범 작품의 번역출간과 그의 모국방문12)

재일작가 김석범은 『화산도』 제1부와 『까마귀의 죽음』 번역출판을 계기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6월 13일 민족문학작가회의(회장 김정한)와 실천문학사는 『화산도』 출판기념회를 서울 마포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실에서 개최하면서 작가 김석범을 초청했으나 주일한국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김석범은 한겨레(1988. 7. 12) 기고를 통해 "나는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초청과 내 책의 출판기념회 참석차 지난 6월 8일 40여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을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나의 염원은 좌절되었다."라면서 "4·3사건은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수 없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김석범은 88서울올림픽이 끝난 후인 11월 4일 고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보도(한겨레, 1988. 11. 6)에 따르면, 김포공항에 마중 나온 제주 출신 문인, 학자, 학생 30여 명은 '화산도의 저자 김석범 선생 귀국 환영-4·3반미 민주항쟁 41년 11월 4일'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치며 환영을 준비했고, 경찰은 플래카드에서 '반미'를 빼달라며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 김석범은 입국 당일 저녁 신촌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제주사회문제협의회(이하 '제사협')의 조촐한 환영모임에 참석했다.

43년 만의 방문에서 그는 보름 동안 국내에 머물렀다. 5일에는 실천문학사가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하면서 거기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7일에는 서울 동숭동의 흥사단 강당에서 아라리연구원과 소나무출판사 주최로 '4·3의 역사적 진실과 문학의 실천과제'에 대해 강연하는 등 연일 행사에 참석하는 강행군을 하다가, 서울의 4·19묘지와 광주의 망월동묘지 등을 참배한 후, 14일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바다를 건너 제주 땅을 밟았다. 그는 40여 년 만의 고향 방문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2) [제1부 제2장] 제1절-3. 도외 지역의 4·3 운동, 4. 제주4·3연구소 창립과 활동 참조(편집자 주).

> 섬에 상륙하면 자신이 길 안내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대규모의 항으로 변모해 버려 도대체 어느 주변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지방의 항에 내렸다는 편이 차라리 기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듯하다. 신문에는 12일에 제주도에 도착한다고 보도됐는데 나는 이틀 늦은 입항을 현지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조용히 상륙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배에서 내린 순간 혼잡한 와중에 미아가 될 듯한 정도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옛날 모습을 더듬어 단서를 떠올려보려 하는 동안에 더욱 혼란해져 허둥대기조차 했다. 우선 택시기사에게 적당한 호텔을 잡아달라고 부탁, 겨우 그곳에서 각 곳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13]

제주에서의 첫 공식 일정은 제주대학교 강연이었다. 김석범은 15일 12시 30분부터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4·3항쟁의 현대사적 의의'란 주제로 강연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김석범은 "4·3은 분단조국의 집중적인 모순이 제주라는 입지적인 조건과 맞물려 노출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사실상 제주민중들의 단선반대와 외부사람들의 탄압에 대한 반발 심리로 유발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반도의 분단을 획책하면서 외세에 대항한 민족해방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14]

16일 오후에는 당시 제주 유일의 신문이던 제주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대담은 양조훈 정경부장이 맡았고, 김종민 기자가 그 내용을 정리했다. 이 인터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84년 말에도 김석범이 제주방문을 추진했던 일을 밝힌 점이다. "84년 12월 아사히신문의 오사라기지로[大佛次郎]상을 수상한 뒤 신문사의 특파원 자격으로 제주 여행을 계획했으나 여건상 오지 못하게 되자 그를 측은히 생각했는지 신문사 경비행기로 공해(空海) 끝까지 날아와 제주를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맑던 하늘이 갑자기 구름에 싸여 희미한 한라산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되돌아갔다는 것"[15] 이다.

20일에는 오후 5시부터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 '4·3의 밤'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김석범은 '4·3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4·3은 반공·반탁을 기치로 단선·단정을 획책·조장하려는 외세와 과거 친일파였던 그 하수인들에 대항한 것이며당시의 모순 구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단 모순은 통일이 될 때까지

13) 「재일 제주출신 작가 김석범 씨 고향방문기」, 제주신문 1989. 7. 14. 이 글은 김석범이 일본에 돌아간 후 일본잡지 『문예춘추』 1989년 5월호에 「42년 만의 한국, 나는 울었다」란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이현모 기자가 발췌 번역해 수록한 것이다.

14) 김종민, 「재일작가 김석범 씨 제주대서 강연」, 제주신문 1988. 11. 16.

15) 김종민, 「43년 만에 고향 찾은 『화산도』 작가 김석범 씨」, 제주신문 1988. 11. 18.

끊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과제는 통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기조강연과 토론에 이어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소속 정공철의 원혼들을 저승으로 보내는 절차로 '뒤풀이'를 한 후 막을 내렸다.[16)]

김석범은 22일까지 일주일 남짓 제주에 머물렀다. 이래저래 바쁜 일정에 쫓겨 친척들과도 번갈아 만나는가 하면, 아버지와 조부모의 성묘도 하지 못한 채 제주를 떠나야 했다. 다시 서울로 갈 때는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비행장의 학살터였던 곳을 바라보며 서울로 향했던 그는 25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 방문 후부터 김석범은 비교적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는 2014년까지 모두 13차례 제주를 방문했다.

한편, 1988년 6월 정부(문화공보부)는 김석범의 번역 소설 등을 '불법좌익서적'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문공부가 이 서적들이 국가보안법 7조 및 형법 23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법심사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이었다. 해당되는 서적은 모두 9종이었는데, 그 중에는 제주4·3과 관련된 도서가 김석범의 소설 2편과 『잠들지 않는 남도』(노민영 편, 온누리출판사), 『제주민중항쟁』(아라리연구원 편, 소나무) 등 모두 4종이었다. 이 가운데 『화산도』(김석범, 실천문학사)에 대한 혐의는 "4·3폭동 원인을 미국의 남조선 점령과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에 있다는 내용을 소설화"했다는 것이었고, 『까마귀의 죽음』(김석범, 소나무)에 대해서는 "4·3폭동을 소설화한 것으로 폭동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분단 원인을 미군정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중앙일보 1988. 6. 22). 그런데 이후의 보도(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등)에서는 김석범의 소설 2편은 고발 대상에서 빠지고 7종만 사법판단이 의뢰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부가 여론을 감안하여 최종 단계에서 대상을 줄이면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이 4·3관련 도서들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판매금지 조치를 당하는 일은 없었지만, 1990년에 김명식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빌미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③ 김명식의 투옥[17)]

김명식은 1990년 7월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이적 표현물 제작)로 전격 구속되었다. 김 시인의 활동에서 문제가 된 책은 시집이 아니라 4·3자료집의 성격이 강한 『제주민중 항쟁Ⅰ·Ⅱ·Ⅲ』이었다. 이 시리즈는 아라리연구원(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

16) 김종민, 「4·3영혼 위로 한풀이 굿판 열려」, 제주신문 1988. 11. 21.

17) [제1부 제2장] 제1절-3. 도외 지역의 4·3운동, 4. 제주4·3연구소 창립과 활동, [제3부 제1장] 제1절-2.필화 사건 참조(편집자 주).

원. 반공적 입장에서 4·3을 말하던 어떤 이는 이 연구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시 아라동에 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의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제1권에는 김봉현·김민주의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발췌본, 존 메릴의 「제주도 반란」 등이 수록되었고, 제2권에는 김봉현·김민주의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 투쟁사』를 영인해서 실었고, 제3권에는 「미군정보고서」 등을 게재했다.

4·3진상규명을 위해 일본과 서울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던 김명식은 『제주민중항쟁』을 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권이 나온 것이 1988년 3월이었는데 1990년 여름의 시점에서 구속된 것은 그해 1월의 3당 합당으로 인한 공안 정국의 부활과 관련이 있었다.[18)]

특히 1991년 4월 3일에 서울 성북구 혜화동의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열린 '민족문학의 밤'에서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김명식 시인의 「4·3꽃들은 다시 피어난다」라는 녹음시가 낭송되기도 했다.(제민일보, 1991. 4. 4).

(3) 전환기적 모색과 다양한 담론(2000년 이후)

① 전개 양상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이 2000년부터 시행되면서 4·3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것은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2003), 대통령의 사과(2003)와 위령제 참석(2006) 등으로 이어졌으며, 문학에서도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소설에서는 오성찬의 『죽은 장군의 증언』(2000), 노순자의 『백록담 연가』(2000), 이 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2003), 고은주의 『신들의 황혼』(2005), 김시태의 『연북정』(2006), 고길지의 『태양의 눈물』(2009), 고봉황의 『비바리』(2010), 김현자의 『슬이의 노래』(2012) 등 장편이 비교적 많이 나왔다. 오경훈의 「가신님」(2001)·「기념탑」(2004) 등 '제주항 연작', 김길호의 「이쿠노 아리랑」(2003), 양영수의 「부전자전 표류기」(2010) 등도 이 시기의 주목되는 소설이다. 공간의 확산(디아스포라적 접근)을 도모한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점, 연애의 서사와 복수 모티프가 적극 활용된 작품이 나온 점 등도 특징적인 면모다.

시 분야에서는 김경훈의 『한라산의 겨울』(2003)과 『고운 아이 다 죽고』(2003), 강덕환의 『그해 겨울은 춥기도 하였네』(2010), 김수열의 『신호등 쓰러진 길 위에서』(2001)· 『바람의 목례』(2006)·『생각을 훔치다』(2009), 허영선의 『뿌리의 노래』

18) 양조훈, 『4·3 그 진실을 찾아서』, 도서출판 선인, 2015, 21~22쪽 참조.

(2004) 등에서 볼 때 창작 주체의 세대교체 현상이 주목된다. 아울러 시조 분야에서는 오승철·오영호·고정국·홍성운 등의 중견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강상돈·이애자·장영춘·한희정·홍경희·고춘옥·김영란·김진숙 등 신인 작가들의 작품들의 약진이 이뤄지면서 4·3문학에서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각인시키기에 이르렀다. 제주어가 성공적으로 구사된 작품들이 적잖이 포착되었음도 특징적인 면모다.

희곡 분야는 2000년대 초입에 장일홍의 「하모니카」(2000)·「우리를 잠들게 하는 별들의 합창」(2002) 등과 김경훈의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2000)·「원죄」(2002) 등 몇 편이 나온 이후 주춤해졌다. 이는 「끝나지 않은 세월」(2005) 등 4·3 장편영화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박재형의 「다랑쉬오름의 슬픈 노래」(2003), 정도상의 「붉은 유채꽃」(2004), 현길언의 「그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2002)·「다들 어디로 갔을까」(2010) 등에서 보듯이 예전의 4·3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장편동화(소년소설)들이 연이어 출간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이는 4·3의 지속적인 기억투쟁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19)]

② 문학 단체의 활동

2000년대 들어 운동으로서의 4·3문학은 격정적인 차원보다는 차분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문학운동 차원의 움직임에는 제주작가회의가 그 중심에 있다. 그런데 운동으로서의 4·3문학은 1980년대 후반 6월 항쟁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청년문학회→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제주작가회의'로 그 맥락이 이어졌다고 하겠는데, 이 단체들은 '4·3문학제' 등을 주최하고 기관문예지인 『청년문학』, 『섬의 문학』, 『제주작가』 등을 각각 펴내면서 4·3진상규명과 도민 명예회복 등을 촉구하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제주청년문학회의 결성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인 8월에 제주문화운동협의회(이하 '제문협')의 출범과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제문협의 문학분과로서의 활동과 독자적인 활동을 병행하였다. 제주청년문학회에서는 사월제에서의 4·3문학제를 주도하면서 운동으로서의 4·3문학 활성화에 앞장섰다. 창립 이듬해 8월에는 『청년문학』 창간호를 내었다. 창간사에서는 민중운동의 맥락으로 출범했다는 것, 민족자주와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문학을 실천코자 한다는 것 등을 밝히는 한편, 지역문학 운동을 활성화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특히 "해방공간에서 일어났던 4·3의 역사적 좌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19) 김동윤, 「2000년대 4·3문학의 양상과 의미」, 『인문학연구』 12, 제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4·3의 문학적 수용 더 나아가 4·3문학의 정립에 온 힘을 쏟을 것"임을 밝혔음이 주목된다.

창간호에는 함승보의 평론 「4·3문학의 현재적 의미」가 수록되었다. 기성 작가들의 주요 4·3문학작품들을 두루 점검하는 가운데 4·3문학의 바람직한 방향을 패기 있게 제시한 글로서, 4·3문학을 반외세 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과 접맥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다. 1980년대 후반의 경우, 아직 4·3에 대한 이념적 논의는 유보해 두고 있으면서, 주로 민중 수난사적 입장으로 접근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청년문학』 제2집이 나온 것은 1993년 1월, 햇수로 5년 만이었다. 여기에는 제주청년문학회의 공동창작 「용강마을, 그 피어린 세월」, 김수열의 「생화장- 래 는 소리」, 김석교의 「가을 산」, 강남훈의 「한라산」·「물장오리를 찾아서」 등의 시와, 함승보의 소설 「적을 찾아서」 등에서 4·3을 다루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1991년부터 제사협과 민족문학작가회의(한국작가회의 전신)가 공동주최하는 '4·3민족문학의 밤'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1991년 서울 혜화동의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1992년 명동 YWCA회관에서 열린 문학의 밤 행사는 4·3진실 찾기 운동의 외연 확장에 문학과 예술의 역할이 컸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2월 26일에는 제주민예총이 출범하면서 문학위원회가 그 깃발을 올렸다. 여기에는 제주청년문학회의 주요 활동가들과 제주의 진보적 문학인들이 함께했다. 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는 '지역문학의 건강한 파수꾼'을 자임하고 나서는 가운데 운동으로서의 4·3문학을 주도하였다. 그것은 기관문예지로 간행한 『섬의 문학』과 4·3문학제 등의 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섬의 문학』은 창립 이듬해인 1995년 7월에 창간되었다. 창간사 격인 '책을 펴내며'에서 문학위원회는 "문학적 지성의 힘으로 오늘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더욱 더 요구되"는 시점임을 전제하며 참다운 민족문학과 지역문학을 견지할 것을 밝혔다. 『섬의문학』은 1997년 3월에 제2호, 1997년 12월에 제3호가 나왔다. 4·3과 관련해서는 창간호에 강덕환의 시 「증언」, 김창집의 소설 「섬에 태어난 죄」, 제2호에 김석교의 시 「숨부기꽃」·「넋 달래려다 그대는 넋 놓고」, 오승국의 시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었네」, 제3호에 김규중의 시 「원동마을」, 김동윤의 평론 「역사적 상상력과 생태학적 상상력의 만남」 등이 수록되었다. 문학위원회가 주관하는 4·3문학제는 모두 네 차례였는데, 4·3시화전과 4·3문학의 밤 등이 4·3예술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1998년 제주작가회의가 출범하였다. 6월항쟁 10주년을 맞은 1997년, 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는 회원들의 자체 토론을 거쳐 작가회의로 나아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

라 제주의 일부 중견문인들과 접촉하여 창립준비모임을 가지면서 논의한 끝에 새롭게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제주작가회의)가 출범했다. 제주작가회의 창립대회는 1998년 2월 14일 오후 3시부터 제주시내 제민신협 3층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제주작가회의는 4·3 제50주년을 기념하여 『바람처럼 까마귀처럼』(1998)을 펴낸 이후 꾸준히 4·3문학선집을 엮어내었다. 4·3소설선집 『깊은 적막의 끝』(2001), 4·3희곡선집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2002), 4·3평론선집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2004), 4·3산문선집 『어두운 하늘 아래 펼쳐진 꽃밭』(2006) 등에 이어, 4·3 제60주년 기념 신작시집 『진혼』(2008)과 두 번째 4·3시선집 『곶자왈 바람 속에 묻다』(2008) 등이 그것이다. 4·3문학심포지엄이나 4·3문학기행을 통해 4·3문학의 깊이와 넓이를 도모하기도 했으며, 기관문예지 『제주작가』에서도 해마다 4·3특집을 마련하였다. 1998년 12월에 창간한 『제주작가』는 2008년부터 계간으로 간행되고 있는데, 4·3특집 제목들을 보면, '되돌아본 제주4·3 반세기'(1999, 제2호), '4·3문학의 재조명'(2000 상반기호), '4·3문학에서 통일문학으로'(2001 상반기호), '4·3소설의 진폭과 그 현장'(2002상반기호), '4·3의 현장과 문학'(2003 상반기호), '한라산과 한라산 사람들, 그 후 50년'(2004 하반기호), '지구화시대의 4·3문학'(2005 상반기호), '항쟁·증언문학의 쟁점과 과제'(2006 상반기호), '돌아오라, 눈물보다 붉게 피었다 진 생명이여'(2007 상반기호), '평화공동체를 꿈꾸는 상생의 문학'(2008 여름호), '「순이 삼촌」 30년'(2008 가을호), '4·3문학의 새 지평을 모색한다'(2009 봄호), '다시 읽는 4·3'(2010 봄호), '4·3을 넘어서는 4·3문학'(2011 여름호), '평화문학 국제포럼: 4·3문학의 새로운 지평'(2012 여름호), '작가가 듣는 4·3 증언서사'(2014 봄호), '한라산과 평화: 한라산 금족 해제 60년'(2014 가을호) 등이다.

4) 4·3미술과 사진

(1) 4·3미술

4·3미술은 대체로 세 시기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1992년 강요배 화백의 역사그림전이 한 획을 그었고, 2000년 4·3특별법 제정·공포가 또 하나의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4·3미술의 시기별 내용과 특징[20)]

구분	기간	내용 및 특징
제1기	1984~1991	제주 민중미술 발흥기, 그림패 코지 중심 활동기
제2기	1992~1999	『동백꽃 지다』 전시, 4·3미술제의 개최와 탐미협 태동기
제3기	2000~	진상규명 운동의 결실기, 4·3미술의 확장기

① 제1기(1984～1991)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미술계에서는 리얼리즘 미술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민족미술, 민중미술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제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1984년 4월 현실고발이야말로 미술의 몫이고 훌륭한 도구라고 자각한 박경훈, 김재경, 문행섭은 제주시 동인미술관에서 제1회 '상황과 표현전'을 열어 시대를 향한 발언을 시도하였다. 제주대학생들이던 이 젊은 화가들은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면서 민중들에게는 따스한 시선을 보냈다. 이는 제주 민중미술의 태동이 된 전시였다고 할 수 있다.[21)] '상황과 표현전'은 1985년과 1986년에도 이어졌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민주화 국면은 제주의 미술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민중미술이 본격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런 움직임 속에 4·3미술이 발흥하게 되었다.

4·3미술의 출발에는 1988년 창립된 '그림패 코지'가 그 중심에 있었다. 바람코지는 1988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가톨릭회관 전시실에서, 이어 4월 1일부터 5일까지 서귀포 상미전시공간에서 창립전을 가졌다. 이들은 미술의 사회적인 발언과 현장성을 목표로 삼으며, 사회모순에 대항하는 건강한 생산자 중심의 미학을 주창하였다. 강태봉, 김동수, 김수범, 부양식, 박경훈, 문행섭, 양은주 등 7명이 창립전에 출품하였고, 곧바로 허순보가 가세하였다.22)

바람코지는 1989년 4월 3일 제주시 세종미술관에서 최초로 '4·3미술제'를 개최했다. 첫 4·3추모제 기간이었다.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판화동아리였던 칼그림패 거욱대도 함

20) 박경훈, 「미술이 만난 역사-제주4·3 미술운동의 역사와 현재」,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역사비평사, 2004), 182쪽의 표를 일부 수정하여 정리한 것임.

21) 김유정, 『통사로 보는 제주 미술의 역사』, 파피루스, 2007, 120쪽.

22) 위의 책, 122쪽.

께 참여하였다.[23] 여기에는 문행섭, 박경훈, 오윤선, 부이비, 김수범, 강태민, 허순보 등이 출품했다. 이 작품들은 그 해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그림마당 민으로 옮겨져 '4·3넋살림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었는데, 이 전시는 최초로 도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4·3미술전시회로 기록되었다.[24]

이때의 작품들은 4·3에 대한 직설적인 폭로라든가 저항적·공격적인 경향을 띠기보다는 다분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이었다. 이는 코지 회원들이 아직 4·3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랫동안 금기시되어온 4·3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쉽지 않았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더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시기에 박경훈은 1990년 제주와 서울에서 4·3을 주제로 한 '박경훈 목판화전'을 개최해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했다. 그의 작품은 통시적인 역사적 사실의 묘사보다는 '토민(土民)'으로 상징되는 제주민중의 개별적이며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데 집중되었다.[25]

> 토민(土民)들은 박경훈의 4·3판화의 주인공들입니다. 토민은 이땅의 토착민으로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들풀입니다. 이 토민은 선량한 농부이자 잠녀이며 우리들의 이웃이자 형제자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터전이라면 조그만 텃밭에도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박경훈의 토민은 분노하고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 저항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
> 「토민1」과 「토민6」은 형상적인 면에서 한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민1」은 그 초상성이 아주 독특하게 표현되어 박경훈 판화의 특징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힘차고 빠르게 가슴 위를 흐르는 칼자국, 얼굴에 쏟아지는 하일라이트에 의한 대비적 효과 때문에 애기를 업은 어머니가 분노하는 표정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26]

「토민」 연작과 더불어 「한라산」, 「혼불」, 「까마귀」, 「통곡」, 「시선」, 「죽창」 등은 박경훈의 4·3미술 세계를 잘 드러내는 대표작들이다. 그는 이후 탐라미술인협의회의 창립과 활동 전개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박경훈은 4·3미술의 선두주자이면서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23) 박경훈, 앞의 글, 182쪽.
24) 양조훈, 앞의 책, 127쪽. 한겨레 1989.4.22.
25) 박경훈, 앞의 글, 183쪽.
26) 김유정, 「광기의 역사에 쓰러진 토민들에게 바치는 헌사」, 박경훈, 『바람길 혼비 내리고』, 파피루스, 1998, 13쪽.

② 제2기(1992~1999)

4·3미술에서 강요배의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문학 분야에서의 현기영의 작업에 거의 버금갈 정도의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여 년 간을 서울에서 활동했던 강요배 화백은 일찍부터 1980년대 미술 운동의 이론가로, 주목받는 화가로서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1990년부터 '제주민중항쟁사' 연작미술전을 준비하였다. 이는 4·3의 역사적 전개에 따른 사실적 재현을 통한 형상화 작업으로, 4·3의 실체를 그 어떤 이론적 설명보다 압축하여 일별할 수 있도록 하는 회화의 힘을 보여준 획기적인 작품들이었다. 3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작업은 소묘와 회화가 어우러진 4·3역사미술 작품으로 그동안 말로만 전해 듣던 4·3의 구체적 형상을 활동사진처럼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 이 연작은 서울과 제주에서 연이어 개최된 전시회를 통해 크게 주목받았다. 이는 한 작가의 예술적 성공만이 아니라 4·3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구체적인 충격과 감동으로 몰아넣어 4·3의 대중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27] 제주 지역의 소그룹인 그림패 코지에 의해 부분적이고 다소 낭만적으로 다루어지던 4·3은 비로소 강요배에 의해 역사적 리얼리즘 미술로 부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28]

1992년 4월 서울(학고재화랑 3~11일)과 제주(세종미술관 21~27일, 이후 연장 전시)에서 강요배 화백의 '제주민중항쟁사 역사그림전시회'가 열렸다. 이 4·3연작에 대해 강요배는 "나 자신이 제주 태생으로 묻힌 고향 역사를 모르면 안 되겠다. 정체성을 바로 세워보자는 생각에서 이 연작을 제작하게 됐다. 최근 들어 '4·3'이란 단어가 널리 오르내리고 있지만 사건 자체로는 대중적 인식이 덜 돼 있어 이를 쉽게 대중화하려고 작품을 만들게 된 측면도 있다."면서 "언젠가 숨구멍이 터지면 제주도 사람 모두가 대성통곡하는 날이 올 것"(한겨레, 1992. 1. 9)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대한 스케일과 사실적 재현이 수많은 관람객을 감동시켰던 이 전시회는 그해에 대구에서도 열렸으며, 1998년에는 제주4·3 50주년기념으로 서울·제주·광주·부산·대구를 돌며 전시회를 가졌다. 특히 제주전시회에서는 매일 하루 500명 이상 줄지어 관람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때 전시된 작품들은 화집 『동백꽃 지다』로 출간되어 많은 독자를 만나기도 했다. 그만큼 이 연작의 의미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모두 50점의 연작으로 구성된 『동백꽃 지다』는 4·3항쟁의 전사(前史)와 발발, 전

27) 박경훈, 앞의 글, 181~184쪽 참조.

28) 김유정, 앞의 책, 126쪽.

개 과정을 첫 작품 「시원(始原)」에서 마지막 「동백꽃 지다」에 이르기까지 항쟁의 뿌리, 해방, 탄압, 항쟁, 학살 등 다섯 섹터로 나누어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준다. 50점 가운데 28점을 삼별초 항쟁, 이재수난, 일제하 반일잠녀투쟁, 1947년 3·1시위와 총파업 등 4·3의 역사적 배경에 할애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4·3을 보는 작가의 시각이 외세에 대한 민중의 저항사라는 확실한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상과 제작에 3년이 소요된『동백꽃 지다』는 그림으로 읽는 대서사시라 할 만하다.

종이에 펜과 먹, 목탄, 콘테,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등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튼튼한 묘사력과 정치(精緻)한 구성력을 근간으로, 서사적인 내러티브 속에 서정성이 물씬 배어 있어 흔히 역사 기념관이나 박물관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진부하고 상투적인 역사 기록화와는 분명한 질적 차별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역사성과 이념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현실주의(리얼리즘) 작품의 범주에 놓이지만, 개별적인 형상들이 추상적인 관념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유와 자주, 인간 해방의 구체적인 보편성으로 고양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는 이들의 감동을 자아낸다.[29)]

강요배는 역사그림전으로 충격을 던지면서 귀향하였다. 그 얼마 후 제주에서는 4·3미술이 조직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강요배와 제주의 진보적인 미술인들에 의해 1994년 벽두에 탐라미술인협의회(탐미협. 나중에 탐라미술인협회로 개칭)가 결성된 것이다. 이는 제주민예총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일로, 탐미협은 제주민예총 미술위원회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탑미협 창립전은 '제주미술-맑은 바람'전으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세종갤러리에서 열렸다.

탐미협은 창립 첫 해 4월 1일부터 '닫힌 가슴을 열며'라는 이름으로 제1회 4·3미술제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 행사를 이어왔다. '닫힌 가슴을 열며'전은 4·3 당시의 생생한 모습과 처절한 역사의 현장, 관광산업으로 파괴되어 가는 제주 사회 등을 담아내었다. 1995년의 제2회는 '넋이여 오라'전으로, 4·3 유적지 순례를 통해 형상화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1996년의 제3회는 '4·3, 그 되살림과 깨어남의 아름다움'전이었는데, 4·3의 총체적 흐름을 파악하여 드러내면서 그 속에서 피어난 민중의 잠재력과 담담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탐미협 회원만이 아니라 제주도 출신 작가들이 두루 참여한 1997년의 제4회 주제는 '자연·사람·역사'였다. 1998년의 경우에는 4·3 50주년 기념전으로 열려, 본 전시로 4·3주제전 '상극의 빗장을 열고 상생의 아름다움으로'를, 특별전1로 4·3역사사진전 '긴 어둠 속을 지나'를, 특별전2로 50년의 4·3, 5년의 4·3미술전을,

29) 김현돈, 「강요배론」, 『미술의 실천, 상생의 미학』,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18쪽.

그리고 특별전3으로 강요배 역사화전 '동백꽃 지다'를 가졌다. 그리고 1999년 제6회는 '보이지 않는 손, 보는 눈-4·3과 미국'전이 열렸는데, 이는 4·3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관련 문서들과 기록들을 재구성하거나 회원들이 일정 부분을 분담해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공동창작전이었다. 이처럼 4·3미술제의 연륜이 쌓이면서 4·3미술은 다양한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기법과 매체를 통해 풍성한 생산력을 보여주었다.[30)]

③ 제3기(2000～)

2000년대 들어서 4·3특별법이 공포되면서 4·3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탐라미술인협회의 4·3미술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2000년에 처음 열린 제7회 4·3미술제의 주제는 '역사가 서린 땅'으로 제주 땅 곳곳에 대한 역사인식의 지평을 미술적으로 확장한 전시였는데, 회화 중심에서 벗어나 회원들이 사진 작품을 토대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새롭게 4·3의 의미를 조명코자 하였다.

2001년의 제8회는 '한라의 무등-역사의 맥'전이었는데, 5·18미술과 4·3미술의 만남이었다. 2002년의 제9회 '테러(TERROR)'전은 당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패러디한 제목으로, 미국의 테러를 제주의 학살과 연결시킨 것이었다.

2003년의 제10회 '진실의 횃불 밝혀 평화의 바다'전에서는 탐미협이 10년 동안 4·3미술제를 통해 발표했던 작품들 중 대표성을 띠는 작품을 전시하고, 4·3미술 전작 도록을 출간하였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2004년의 제11회 4·3미술제에서는 잃어버린 마을을 답사한 결과물들을 선보였다.

2005년의 제12회는 '동행'전이었는데, 작가에게 내면화된 4·3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006년의 제13회는 '바람·바람'전으로,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고민하고 드러내고자 하였다. 제14회인 2007년의 '다시 그곳에서'전에서는 4·3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2008년의 제15회 주제는 '개토(開土)-60년 역사의 변증'전으로, 4·3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다.

제16회로 열린 2009년의 '맥박'전에서는 4·3을 이미 끝난 역사가 아닌 영원한 기억으로 남기자는 뜻을 담았다. '4·3 그리고 내력담'전으로 열린 2010년 제17회의 경우는 평화공원 야외공간을 전시장으로 택해 설치작업 중심의 행사를 가졌다. 2011년의 제18회는 '산전제-초심으로 돌아가기'전이었는데, 별도의 전시 없이 교래리 이덕구산전에서

30) 박경훈, 앞의 글, 185~188쪽. 「4·3미술제 연혁」, 『다시 10년의 4·3미술』,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탐라미술인협회, 2013, 258～259쪽 참조.

치러졌으며, 탐미협 회원들을 대표하여 강문석 작가가 청동으로 제작한 밥상이 그 현장에 설치되었다. 2012년의 제19회 '식구'전에서는 연명(延命)의 흔적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013년의 '굉(轟)-여러 개의 시선들'전은 20회를 맞으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마지막 굉음을 낸다는 의미를 담았다.31) 2014년의 제21회는 '오키나와, 타이완, 제주 사이: 제주의 역사는 갑오년이다!'전이었는데, 기존의 탐미협 회원전에서 벗어나 4·3미술의 국제적 연대를 도모코자 하였다.

20년을 이어온 4·3미술제는 21회 때부터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줄곧 탐라미술인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에 이르러 예술감독을 선임하여 규레이팅십에 의한 전시 조직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4·3미술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 탐라미술인협회 회원을 포함한 개별 작가, 이주 작가, 외국 작가 등 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한 시선을 수용하고 매체 실험적인 표현을 확장하였다.

한편, 4·3미술 작품이 묻혀버리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는 4·3평화기념관의 전시물과 관련된 것이었다.

4·3 제60주년인 2008년 3월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을 앞두고 아트워크 작품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김대중 화백의 「오라리 사건의 진실」이었다. 이 작품은 오라리 방화를 무장대의 소행으로 조작 기록한 미군 쪽 영상자료를 근거로 카툰과 포스터로 그려낸 가로 10m에 달하는 대형작품이었다. 이런 조작 사건을 백악관과 직접 연결된 것처럼 형상화한 부분과 격한 포스터 표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이들이 있었다.

3월 20일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 변호사)의 전시물 최종 점검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소위원회는 3월 25일 "백악관과 중앙청이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오라리 조작사건 배후에 미국정부가 있는 것처럼 모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측, 추상적인 표현, 자극적인 그림을 자제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충실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화백은 "미정부의 대응-미군정의 대응-평화협상-오라리사건-제주도 메이데이로 이루어지는 작품의 한 축은 사실로서 드러나지 않았으나 당연히 추론 가능한 부분을 보여준 것"이라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해당 그림은 가려진 채 전시관이 개봉되었다.32) 물론 이 그림은 아직까지도 4·3평화기념관에서 만날 수 없는 작품이 되고 말았다.

31) 「4·3미술제 연혁」, 위의 책, 259~263쪽 참조.

32) 양조훈, 앞의 책, 457~458쪽.

〈표 2〉 4·3미술제 목록

연도	전시 제목	연도	전시 제목
1994	닫힌 가슴을 열며	2005	동행
1995	넋이여 오라	2006	바람·바람
1996	4·3, 그 되살림과 깨어남의 아름다움	2007	다시 그곳에서
1997	자연·사람·역사	2008	개토(開土)-60년 역사의 변증
1998	4·3 50주년 기념전(본 전시 '상극의 빗장을 열고 상생의 아름다움으로' 외 특별전 3건)	2009	맥박
1999	보이지 않는 손, 보는 눈-4·3과 미국	2010	4·3 그리고 내력담
2000	역사가 서린 땅	2011	산전제-초심으로 돌아가기
2001	한라와 무등-역사의 맥	2012	식구
2002	TERROR	2013	굉(轟)-여러 개의 시선들
2003	진실의 횃불 밝혀 평화의 바다로	2014	오키나와, 타이완, 제주 사이: 제주의 역사는 갑오년이다!
2004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을 만나다		

(2) 4·3사진

4·3 관련 사진들은 발발 당시부터 생산되어 왔다. 사태의 참상과 중요성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4·3의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진상규명 운동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로서의 4·3사진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제주민예총에서도 사진작가들이 따로 조직을 이룬 것은 출범 10년이 더 지난 후의 일이었다. 처음에 사진작가들은 미술위원회 즉 탐라미술인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탐미협 출범 당시부터 함께 활동한 사진작가는 강정효, 송동효, 신용훈 등이었다. 이들은 1994년의 제1회와 1995년의 제2회 4·3미술제에도 출품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다가 제3회에는 출품 작가가 없었고 제5회에 강정효와 송동효만 참가하더니 나중에는 강정효만 4·3미술제에 출품하거나 탐미협에 남는 상황이 되었다.

그 와중에 2002년에는 다랑쉬굴 발굴 10주년을 기념한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전이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주시 세종갤러리에서 열렸는데, 이때 김기삼이 발굴 당시에 촬영한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사진들과 함께 김동만이 해설을 곁들인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도 간행되었다.

탐라사진가협의회는 2005년 7월에 출범하였다. 김기삼, 강정효, 김호천, 이병철, 고성만, 오은정, 김명선, 한종경 등이 참여하였다. 개인 자격으로 제주민예총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다른 작가들과 함께 사단법인을 꾸린 것이다. 탐사협 출범 이전에도 평화공원에서 제주민예총 사진분과의 이름으로 4·3사진전을 갖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4·3사진전은 2006년부터 개최되었다.

2006년 탐사협의 첫 4·3사진전은 '질곡의 세월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김기삼은 다랑쉬굴의 뼈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전시했고, 강정효는 4·3의 한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제주 만인보'란 이름으로 담았는가 하면, 김호천은 제주의 수많은 무덤들을 포착했으며, 이병철은 4·3과 관련된 불교계 흔적들을 보여주었다. 탐사협은 초대의 글에서 "사진이 갖는 큰 장점이 기록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첫 전시회가 4·3이라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이 작업은 진정 4·3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무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33)]

2007년에는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증언'전을 가졌다. 김기삼, 강정효, 김호천, 이병철, 고성만이 「한의 증언」, 「59년 만의 증언」, 「죽어서도 말한다」, 「오늘도 그 한을 노래로 달랜다」, 「몸으로 말하다」를 각각 선보였다.

2008년에는 이전까지의 4·3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과 4·3 당시 학살현장에서 진행 돼온 '찾아가는 위령제'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 『뼈와 굿』을 펴냈다. 3월 28일 개관하는 4·3평화기념관에서 유해 발굴 과정을 담은 사진전 '다랑쉬에서 정드르까지'를 6월 30일까지 열었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4·3사진전을 개최했다.

2010년에는 '까마귀'전을 열었다. 4월 2일부터 7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진행된 이 전시회에서는 까마귀를 통해 4·3 당시를 투영하고 다시 평화를 이야기하고 기원하였다.

2011년에 조천읍 북촌리와 구좌읍 동복리 양민학살을 다룬 사진집 『가매기 모른 식게』를 펴냈다. 탐라사진가협의회 회원들은 이해 1월 21일 북촌리와 동복리에서 열리는

33) 진선희, 「질곡의 세월 품은 흔적 고스란히」, 한라일보 2006. 3. 30.

가매기 모른 제사를 지내는 유족들의 집을 방문해 그날의 제사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으며, 유적지와 밤 풍경 등도 포착했다. 사진집 발간을 기념해 4월 1일부터 6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가메기 모른 식게'라는 주제로 사진전도 열었다.
2013년 4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저 귓것들의 삶'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전시회를 가졌다. 4·3진상규명과 문화운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제주작가회의, 탐라미술인협회, 놀이패 한라산, 풍물굿패 신나락, 민요패 소리왓 등 제주민예총 예술인들의 20년에 걸친 삶과 정신을 기록한 전시였다

2014년 4월 4일부터 8일까지는 '4·3, 남겨진 자들의 슬픔-무등이왓'전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가졌다. 탐사협은 이 전시를 위해 안덕면 동광리에 살고 있는 10여 명의 유족들과 동행해 잃어버린 마을인 무등이왓, 삼밭구석, 큰넓궤 등의 4·3 현장을 누볐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김기삼이 '사진으로 보는 4·3진상규명 운동'전이 열렸다. 1989년 시민회관 첫공개 추모제부터 2000년 특별법 제정까지 4·3진상규명 운동의 현장을 담은 김기삼의 사진 중 77점의 흑백사진이 선보인 것이었다. 2013년 1월 4일부터10일까지 제주영상위원회 신산갤러리에서 전시한데 이어, 1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4·3평화기념관 예술전시실에서 연장 전시되었고,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는제주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

강정효는 2013년 『4·3으로 떠난 땅, 4·3으로 되밟다』를 출간하였다. 2008년 4월 4·3 60주년을 맞아 제주를 방문했던 재일동포와 일본인으로 구성된 '4·3교류방문단'이 보낸 2박 3일 동안의 행적을 포착한 것으로 문소연의 글과 함께 엮였다. 상념에 젖고, 탄식하고, 눈물을 훔치는 방문단의 모습 등이 생생하게 담겼다.

5) 4·3연극

(1) '놀이패 한라산' 이전의 마당극

4·3연극의 중심에는 마당극이 있고, 마당극의 중심에는 바로 '놀이패 한라산'이 있다. 이에 앞서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제주지역 문화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수눌음' 극단도 있었지만, 이 극단에서는 4·3 문제까지 다루지는 못했다. 놀이패 한라산의 경우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창립한 이후 처음에는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조직의 일원으로, 나중에는 제주민예총의 연극위원회로도 활동하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마당극(마당굿)으로 올렸는데, 그 중 대다수가 4·3작품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놀이패 한라산에 앞서 4·3작품 공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학생들의 공연이 그 출발이었다.

제주대학교 야간강좌부 학생들로 구성된 '놀이마당 너븐드르'에서는 1988년 9월 7일 야간강좌부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4·3을 다룬 「협죽도」를 공연해 주목받았다. 제주대학교 옴팡밭에서 열린 이 마당극은 미숙한 진행과 구성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한 수난사적인 태도에 함몰되지 않고 방대한 주제를 형상화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제주신문, 1988. 9. 9).

1989년 3월에는 서울민중연합 민족문화교실이 서울 신촌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잠들지 않는 남도」(연출: 김재신)를 공연했다. 그 당시의 제주도와 40년 전 4·3이 일어났던 과거의 시점을 오가면서 극의 효과를 더욱 풍부하게 전달하기 위해 슬라이드·노래·춤·시 등을 다양하게 결합시킨 마당극이었다.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4·3 문제가 전국 무대에 처음 올려졌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현장취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다.34) 「잠들지 않는 남도」 공연에 대해 '화제의 무대'로 소개한 한겨레신문 기사의 일부를 옮겨본다.

> 막이 오르는 것과 때맞춰 미 공군기지 건설 소문이 떠도는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을 찾아간 관객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축을 거슬러올라 해방공간의 모슬포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관객들은 배우들과 더불어 제주도 주민의 4분의 1을 희생시킨 그해 그 사건의 의미를 탐색한다.
> 분명히 서툰 구석이 없지 않지만, 또한 분명히 진지함으로 충전돼 있는 젊은 배우들이 애써 말하려는 것은 그때 제주인들이 맞서 싸웠던 '외지인'은 겉보기엔 서북청년단이고 토벌대고 이승만세력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땅에 분단체제를 구축하려던 미국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4·3봉기는 외세에 기댄 단독선거, 단정수립을 반대하고 이땅에 통일된 자주적 민족국가를 세우려던 영웅적 항쟁이자 임박한 분단의 어스름에 맞서 활활 타오른 해방공간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사실이다.
> 이 작품을 '수작'이라고 말하는 데는 물론 얼마쯤의 용기가 필요하다. 짧은 연습기간 때문에 그랬겠지만 특히 대사 처리의 부자연스러움이 다소 거슬린다. 그러나 4월 3일의 봉기를 불꽃춤, 죽창춤으로 상징해낸 것과 4·3의 참상을 담은 슬라이드를 제주도로 여행 온 신혼부부의 밀어와 대비시킨 것은 인상적이다. 어쨌든 이 작품이 무대에

34) 박찬식, 「4·3극과 역사적 기억」,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141쪽.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해방의 정서, 통일의 정서가 힘을 키우고 있음을 뜻한다.[35)]

민주화 열기가 매우 뜨거웠던 6월 항쟁 이후이긴 했지만, 4·3은 당시로서는 여전히 민감한 소재였다. 이런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사건이 되던 때였다는 것이다.

(2)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극

놀이패 한라산은 1987년 7월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출범과 함께 결성되었다. 놀이패 한라산은 출범 이후 「그날 이후」(1987), 「항파두리놀이」(1988), 「요 노릇을 어떵 허코」(1988)와 같은 작품들을 공연한 데 이어, 치밀한 준비를 거쳐 4·3마당극을 선보이게 되었다.

놀이패 한라산이 마련한 첫 4·3 공연작품은 바로 1989년 4·3추모제 때의 「4월굿 한라산」(연출 김수열)이었다. 이 작품은 4월 1일 오후 7시 30분, 2일 오후 1시와 4시 등 모두 세 차례 제주시민회관에서 공연되었다. 놀이패 한라산 단원들은 공연에 앞서 '구속도 감수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나섰다.[36)] 경찰은 공연 2개월 후 대표 등 3명을 소환연행 조사하는가 하면 다른 회원 모두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이에 대해 놀이패 한라산은 "4월굿 한라산은 4·3의 실체와 진상에 접근해 보려는 시발점으로 당시 희생된 영령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작품이며, 공연 신고, 공연자 등록, 대본제출 등 공연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치른 합법적 공연"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은 놀이패 한라산 전 회원이 제주경찰서 대공과에서 조사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4월굿 한라산 작품 의도'에서 "3만의 죽음 위에 붉은 깃발을 덮으려는 의도도, 공산 폭도들의 음모라는 극우적 이데올로기의 그릇된 시각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난을 당한 것이다.37) 이 마당극은 같은 해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신촌 예술극장에서 열린 제2회 민족극한마당에서도 공연되었으며, 1998년에는 8월과 9월 제주·부산·목포·과천·오사카 등지에서 10년만의 재공연을 갖기도 했다.

35) 고종석, 「화제의 무대: 4·3항쟁 새값 매긴 '잠들지 않는 남도'」, 한겨레, 1989. 3. 3.

36) 양조훈, 앞의 책, 33쪽, 126쪽.

37) 김경훈, 「놀이패 한라산의 4·3마당극 '사월굿 한라산'」, 제주4·3평화재단, 『4·3과 평화』 제7호, 2012, 28~29쪽.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1947년 3·1절 기념대회장에서 경찰이 발포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5·10 선거와 서북청년단의 투입과 무자비한 살상, 입산과 4·3봉기, 굶주림과 살육으로 이어지는 4·3항쟁의 전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의 중심은 사건 자체와 그것을 이끌어가는 민중이다. 입산한 젊은이, 아기엄마, 나이 든 부부 등 다양하고 개성 있으면서도 집단적인 민중들이 어떻게 입산하고 투쟁하며 죽어갔는가를 자유분방한마당극의 표현 방법을 통해 잘 드러내었다. 특히 에필로그 역할을 하는 진혼굿은 작품 자체의 성격과 잘 연결된다고 평가되었다.

1989년에 4·3을 총체적으로 그려낸 「사월굿 한라산」 이후 놀이패 한라산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각론으로 접근하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4·3 시기에 벌어졌던 마을 단위별 학살의 실태에 주목하게 되었다. 해당 마을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굵직한 학살 사태들, 그러면서도 항쟁과 학살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사안들에 집중하는 작품들을 연속적으로 창작하여 공연하였다.

이 시기 작품들 가운데 「백조일손」(1990), 「헛묘」(1991), 「꽃놀림」(1992)은 대량학살사건들을 다루었다. 「백조일손」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전개된 예비검속자 학살 사건을 통해 4·3의 참혹한 실상을 재현했으며, 「헛묘」는 시신 없는 봉분을 통해 4·3 당시의 학살에 대해 그리는 가운데 그것을 마을 공동목장 문제와 연결하여 공동체의 수탈과 투쟁 양상을 그려내었다. 「꽃놀림」에서는 500명이 집단학살당한 북촌리 사례를 통해 죽음의 시대를 극복하려는 상생의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 「서청별곡」(1997)은 '빨갱이 사냥꾼'으로 입도했던 서북청년회의 횡포와 그에 얽힌 애환을 다루었고, 「살짜기 옵서예」(1993)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주도내 관광지의 모습과 함께 여행객에게 잊혀진 과거의 학살현장을 재생하여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4·3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역사적 물음표를 던졌다.38)

1990년대의 작품에서 「백조일손」, 「헛묘」, 「꽃놀림」은 모두 2000년대에 재공연되었다. 「꽃놀림」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1월까지 김경훈 연출로 제주, 도쿄, 부산, 성주, 목포 등지에서 10회의 재공연을 가졌고, 「백조일손」도 2010년에 개작되어 다시 공연하였으며, 「헛묘」의 경우는 2005년에 개작 공연한 데 이어 2007년에도 재공연을 가졌다. 특히 「꽃놀림」의 2003년 4월 재공연은 학살 현장인 북촌리 당팟 옆에서 열려 화제가 되었다. 1949년의 학살 사건과 그 5년 후의 '아이고 사건'을 겪은 주민과 그 후손 등이 객석을 채운 이 현장 공연은 그야말로 4·3이 현재진행형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거

38) 박찬식, 앞의 글, 146~149쪽.

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은 재현 장면이 나올 때마다 연신 탄식하고 한숨 내쉬기를 반복하였다. 극중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굿 장면에 이르러서는 망자에 대한 배례를 하려는 주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져 극의 진행이 지체될 정도였다. 현장 공연의 감동과 전망이 잘 표출된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39)]

2000년대의 마당극으로는 「광기」(2000), 「애기동백꽃의 노래」(2001, 연합공연), 「원죄」(2002), 「섬, 사람들」(2004), 「역(逆)」(2006), 「버즘나리」(2008), 「식구」(2009),「현해탄의 새」(2011), 「산호수놀이」(2012), 「마지막 빨치산」(2013), 「꽃사월 순임이」(2014) 등이 있다. 새로운 작품이 공연되지 않는 연도에는 주로 이전 작품의 개작 재공연이 이루어졌다.

역대 4·3마당극에서 가장 역작은 2001년에 선보인 「애기동백꽃의 노래」라고 하겠다.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재공연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컸던 작품이다.

'4·3대서사극'을 표방하면서 무대에 올려진 이 극은 다양한 장르를 활용한 총체적인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놀이패 한라산을 비롯해서 노래빛 사월, 민요패 소리왓 등 제주민예총 연행분과가 연합공연을 했으며, 출연 배우도 30명에 달하고 스태프를 포함하면 7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 큰 스케일의 작품이었다. 제주도 어느 마을의 여자 세 명이 겪는 인생사의 전개가 4·3과 맞물리면서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 이야기가 절절한 감동을 주었다. 잔인한 고문 속에서도 온몸을 던져 남편을 구하려는 '경자', 분단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일선', 처참한 시절을 노래라는 처방전으로 애써 살았던 '진옥', 이들 세 제주 여성의 삶을 통해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4·3의 연속적 맥락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비전향 장기수, 재일 조선인 문제 등을 아우르며 4·3의 문제의식이자 담론인 통일 문제를 다룸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었다.

2012년의 「산호수놀이」도 주목할 만한 공연이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이 벌어지는 강정마을이 '제2의 4·3현장'이라는 설정에서 시작되는 이 작품은 '산호수와 마마신'이라는 제주의 전설과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4·3, 그리고 현재의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축으로 이루어졌다. '산호수와 마마신'이라는 전설은 '마마'라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마마신'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주민들을 수탈하자, 해녀가 자신을 희생하며 '산호수'를 구함으로써 마마신 일당을 물리친다는 이야기다. 공연에서 구럼비 바위는 산호수를 전해주는 정령이 깃든 바위로 설정되는데, 결국 이 정령의 힘과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해군기지를 물리치게 되면서 공연이 끝났다. 이 작품도 강정마을 현장에서 공연되었다. 객석을 꽉 메운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공연 내내 배우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함께

39) 김경훈, 「4·3 정신 사월굿으로 해원하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49호, 2014 여름호, 50~51쪽.

울고 웃고, 함께 분노하였다.[40)]

〈표 3〉 '놀이패 한라산'의 4·3마당극 목록

작품	극작	연출	연도	작품	극작	연출	연도
사월굿 한라산	공동창작	김수열	1989	광기	김경훈	김수열	2000
백조일손	공동창작	김수열	1990	애기동백꽃의 노래(연합공연)	김경훈, 장윤식, 김형섭, 한진오	김수열	2001
헛묘	공동창작	김수열	1991	원죄	김경훈, 고윤정, 이정은	이상철	2002
꽃놀림	공동창작	김수열	1992	섬, 사람들	여상익	이상철	2004
살짜기 옵서예	김경훈	한경임	1993	역(逆)	이효춘, 고윤정, 이정은	부진희, 여상익, 이정은	2006
사월	공동창작	공동연출	1994	버즘나리	우승혁	이상철	2008
목마른 신들	장윤식	김수열	1995	식구	김경훈	우승혁	2009
4·3의 기초	장윤식	김수열	1996	현해탄의 새	장윤식	김수열	2011
동이풀이	문무병	문무병	1996	산호수놀이	김경훈	김경훈	2012
서청별곡	장윤식	김수열	1997	마지막 빨치산	김경훈	김경훈	2013
사팔생오칠졸	김경훈	한경임	1998	꽃사월 순임이	한진오	윤미란	2014
격랑	김경훈	정공철	1999				

(3) 무대극의 양상

무대극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공연되었다. 제주 출신 극작가인 장일홍과 강용준의 작품이 주로 무대에 올려졌다.

극단 '가람'의 「귀양풀이」가 1990년 4월말의 지역예선(최우수상)을 거쳐 5월 21일부터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제8회 전국연극제에 참가했다. 6월 3일 공연된 이 작품은 굿을 통해 노동 운동이라는 첨예한 현실과 4·3이라는 시대적 아픔을 일시에 풀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이었다. 199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 희곡인 장일홍의 「강신무」를 개작한 것으로, 이광후가 연출을 맡았다. 무대극으로서는 최초의 4·3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장일홍의 4·3희곡은 계속해서 연극으로 공연되었다. 1991년 대한민국문학상 희곡부

40) 위의 글, 50~51쪽.

문 당선작인 「붉은 섬」은 전국연극제 제주 출품작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에 앞서 제주도에서는 단일팀 제주극협을 꾸렸으며 공연작으로는 「붉은 섬」을 무대화한 것이다. 1947년 3월부터 1949년 6월까지 선흘리 일대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김중효가 연출했다. 1992년 4월 6~8일 3회 공연에 1400명을 동원한 이 연극은 5월 21일부터 2주간 열린 전국연극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 가족사를 통해 4·3의 상처를 일깨운 장일홍의 다른 희곡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도 서울과 제주에서 공연되었다. 서울에서는 1992년 6월 24~30일 성좌소극장에서 길명일 연출로 공연되었고, 같은 해 10월 한라문화제 기간에는 극단 이어도가 제주문예회관에서 박해란 연출로 공연되었다.

1994년 3월 5일과 6일 제주문예회관에서는 강용준의 희곡 「폭풍의 바다」가 서울 소재 극단인 '전망'에 의해 공연되었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한 가족의 슬픔을 통해 4·3의 아픈 역사를 보여준 이 작품은 심재찬 연출로 유영환, 이용녀, 김종칠 등 11명의 배우가 출연했다. 이 연극은 한국연극협회가 문예진흥원의 후원으로 벌이는 '창작극 개발 프로그램'의 첫 작품이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강용준의 희곡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작가의 연출로 다시 무대에 올랐다. 「좀녜」가 극단 이어도에 의해 4월 2일과 3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 것이다. 4·3의 회오리를 피해 바깥물질을 나간 제주 해녀들의 애환이 작품의 골격을 이루었는데, 4·3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1995년 서울과 제주에서 공연된 극단 로뎀의 「느영 나영 풀멍 살게」는 4·3의 상처를 안고 반세기를 모질게 살아온 제주 여인의 인생역정을 그린 연극이다. 하상길이 극본을 쓰고 연출한 이 작품은 제주 출신 연기자인 고두심이 주연을 맡아 큰 관심을 끌었다. "그 넓은 문예회관대극장을 가득 메우고도 매회 입장을 못하고 돌아가는 관객이 있을 정도로 성황을 이룬 연극은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는데, "서울 공연 때는 관객 동원에 실패 했음에도 제주에서 이처럼 성황을 이룬 배경에는 제주가 나은 불세출의 연기자 고두심 씨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41] 이라는 평에서 그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건의 정곡을 파헤치기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안이하게 화합을 도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3년에는 오태석이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앞산아 당겨라 오금아 밀어라」가 서울과 제주에서 공연되었다. 4·3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소박한 제주의 양민들이 겪는 고통을 다루었다. 어수룩한 남편과 생명력이 강한 아내가 부당한 역사와 맺는 희생과 저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서울에서는 "4·3의 억울함과 제주도민에

41) 강용준, 「또 하나의 진혼곡-'느영 나영 풀멍 살게'를 보고」, 한라일보, 1995. 8. 29.

대한 차별을, 제주도 방언이 안고 있는 소멸 위기와 안타까움으로 대변"42) 했다는 평을 내리기도 했지만, 제주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쇠를 녹여서 도구로 만드는 디딤불미 연희를 통해 화해의 분위기를 유도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담은 4·3의 역사적 기억과는 동떨어지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43)]

2013년에는 현기영 소설 「순이 삼촌」을 각색한 연극이 화제 속에 공연되었다. 제주출신의 김봉건이 각색·연출을 했는데, 탤런트 양희경과 백성현이 주연을 맡고, 배우 이순재가 예술감독을 맡아 더욱 관심을 끌었다. 서울에서 한 달 가까이 공연한 데 이어 제주에서도 이틀간 공연하였다. 언론에서는 「순이 삼촌」 연극이 영화 「지슬」의 열풍을 이어갔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6) 4·3영화

(1) 4·3영상물의 등장과 전개

4·3영상물이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6월 항쟁 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제작 과정이나 방영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 무렵 가장 먼저 지상파를 탔던 다큐멘터리는 1989년 4월 제주MBC(김건일 기자)의 「4·3 기획: 현대사의 큰 상처」였다. 우선 4·3의 존재에 대해 알리고,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각과 4·3의 문제점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제작되었다고 한다. "시대 상황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갈 수가 없었"으며, "증언자가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제작자의 증언이다.[44)]

TV다큐멘터리 「제주도: 4·3 전후」(1989/50분)는 KBS가 '해방과 분단' 시리즈 제1편으로 기획했던 작품이었다. 한 소설가의 4·3 진실찾기의 기행문 형식인데, 4·3의 원인 재점검을 통하여 공산폭동이라는 공식역사를 재질문하고 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비극을 보여주면서도, 그 책임은 이승만 정권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방송되지 못하고 말았다.[45)]

이처럼 1980년대 후반 이후 얼마간은 TV에서 제작된 4·3영상물들이 먼저 주목되었다. TV 다큐멘터리들은 1989년 제주MBC의 「4·3 기획: 현대사의 큰 상처」 이후 많은

42) 김남석, 『오태석 연극의 미학적 지평』, 연극과인간, 2003, 199쪽.

43) 박찬식, 앞의 글, 153~154쪽.

44)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2006, 251쪽 및 258쪽.

45) 위의 책, 258쪽.

작품들이 나왔지만,[46] 드라마의 경우에는 두 편 정도 주목할 수 있다.

1990년 6월에는 현길언의 4·3소설인 「우리들의 조부님」이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영되었다. KBS 6·25 특집극으로 방영된 이 드라마는 외주업체인 디렉터스 미디어(대표 박진수)가 제작하여 6월 23일 토요일 밤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전파를 탔다. 현길언 원작을 최순식이 드라마대본으로 각색했으며, 선동혁 등이 출연했다. 제주4·3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아버지의 넋이 할아버지에게 빙의된 것을 계기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가는 과정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조명한 작품으로, 1990년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표선민속촌, 성읍리, 금덕리 등지에서 촬영했다.

1991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MBC에서 방영된 「여명의 눈동자」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대하드라마였다.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6·25전쟁 발발까지의 현대사를 담아낸 이 드라마의 원작은 김성종의 대하소설 『여명의 눈동자』(1981, 전 10권)였다. 총 36부작으로 제작된 드라마에서 6분의 1에 해당하는 6개 부에서 4·3을 다루면서 4·3 인식의 전국적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 드라마에서는 최대치(최재성 분)와 윤여옥(채시라 분)은 제주에 들어와서 서청과 경찰의 횡포를 목격하고 봉기에 가담하는 인물로, 장하림(박상원 분)은 진압군의 일원인 미군정 정보장교로 입도하는 것으로 각각 설정되었다. 다소 반공적인 원작과는 달리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휴머니즘적으로 4·3을 접근했다고 평가된다.[47]

연출을 맡았던 김종학 피디는 "김성종 원작인 이 작품이 유신치하에 쓰여져 반공이데 올로기가 지나치게 강조된 극우작품이라며 1975년 연재 당시 말이 많았던 작품이지만, 4·3 부분은 완벽하게 각색했다"고 강조했다.(제민일보, 1991. 11. 7).

대본을 쓴 송지나 작가는 "4·3은 그간 가려졌었고 그래서 더욱 공부해 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4·3은 아직 단독기획이 어렵고, 또한 그 내용이 전체 드라마속에 용해되어 있지 않으면 가지치기당할 우려도 있어서 「여명의 눈동자」에 끼워넣게 된 것입니다."라면서 "4·3을 쓰면서 이것이 화제가 되고 논의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제민일보, 1992. 2. 7).

(2) 4·3영화의 수난과 성과[48]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에는 4·3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거나 상영했다는 이유

46) 제주4·3 TV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위의 책, 258~266쪽을 참조할 것.

47) 양조훈, 앞의 책, 119~121쪽.

48) [제1부 제2장] 제1절-4. 제주4·3연구소 창립과 활동, [제3부 제1장] 제1절-3. 4·3다큐멘터리 탄압 참조(편집자 주).

로 감독 등이 수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독립다큐멘터리 「잠들지 않는 함성 4·3항쟁」 감독인 김동만과 「레드 헌트」를 상영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잠들지 않는 함성 4·3항쟁」은 김동만 감독이 1995년에 제작한 56분 분량의 작품이다. 김 감독은 이전에도 다랑쉬굴 유해 발굴 과정을 다룬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1993)를 제작한 바 있었다. 「잠들지 않는 함성 4·3항쟁」은 4·3의 원인과 성격, 피해의 참혹성을 민중항쟁적인 시각으로 그려내었다. 특히 작품 뒷부분에 학살당한 1만 5천 명의 희생자 명단을 자막으로 내보냈는데, 그 시간이 무려 16분이나 되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국에 유포되었던 이 다큐를 사정 당국에서 뒤늦게 문제삼은 것이다.[49] 이 작품에 대해 김동만 감독은 "제목에서 표현하듯 이 비디오는 분명히 4·3을 항쟁의 입장에서 바라봤고 그리고 제주 민중들의 저항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4·3이 3·1절 기념식 이후 탄압에 견디지 못한 도민들의 저항인데, 이것을 4·3항쟁의 기본 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10단선 반대를 제주도민들의 통일 요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50] 라고 말한 바 있다.

「레드 헌트」는 부산 출신인 조성봉 감독이 1997년에 만든 67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화다. 조 감독은 왜곡된 한국 현대사의 근원을 찾다가 4·3과 맞닿게 되어 이 다큐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1992년 다랑쉬굴 희생자 유골 발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다큐 영화는 미군정보고서와 당시 신문보도 등을 활용하는 가운데 체험자의 인터뷰를 통해 대량학살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었고, 이승만 정부와 미국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이 다큐 영화는 그해 10월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는데,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화제를 주최한 서준식 대표가 1998년 2월 10일 구속되었다.

난데없는 공안 정국에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탄압을 받은 두 작품은 오히려 크게 화제가 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조명을 받았다. 「잠들지 않는 함성 4·3항쟁」은 일본어와 중국어 자막이 들어간 비디오로 제작되어 일본과 대만 등지에서 상영되었다. 「레드 헌트」는 베를린영화제, 암스테르담영화제 등에 초청되었고, 영어로 번역되어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스위스 등지에서 상영되었다. 이 두 작품은 2년여의 법정 투쟁 끝에 이적표현물이 아닌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

'제주4·3다큐멘터리 제작단'을 주도하던 김동만 감독은 이후 「제주도 메이데이의 실체」(1998), 「무명천 할머니」(1999), 「유언」(1999), 「일본으로 간 4·3위령제」(2001) 등

49) 양조훈, 앞의 책, 203~204쪽.

50) 권귀숙, 『기억의 정치』, 243쪽.

4·3다큐멘터리를 연이어 제작 발표했다. '하늬영상'의 조성봉 감독은 1999년 증언자 12명의 목소리를 통해 초토화 작전과 관련된 학살자의 정체를 추적해 가는 90분짜리 「레드 헌트 2」를 만들어51) 4·3진상규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다.[52)]

2000년에 4·3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얼마간 당국의 외적 탄압은 거의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4·3영화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경률 감독의 「끝나지 않은 세월」(2005)은 4·3을 다룬 최초의 장편극영화라고 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2003년 10월, TV뉴스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접하는 두 노인(형민, 황가)의 서로 다른 과거 회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영화다. 어린 시절 겪은 4·3의 끔찍한 기억이 노년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역사의 진실과 인간의 문제를 담아내었다. 특히 이 영화는 제31회 서울독립영화제 특별초청부문에 상영됐으며, CJ-CGV 디지털장편영화 제작 지원, 대구평화영화제 개막작, 제4회 제주영화제트멍상 수상작(2005)이기도 했다. 이 영화는 작품성과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영화의 불모지에서 시도된 영화라는 점, 영화 제작진과 배우를 현지에서 조달하고 제주도민들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4·3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53)] 그러나 김 감독은 그해 12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오 멸 감독의 「지슬」(2013)은 4·3영화로서 높은 성취를 보여주었다. 이 작품은 '끝나지 않은 세월 2'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이는 김경률 감독을 추모하는 뜻이 담겼다. 이 영화는 14만 명이 넘는 누적관객을 기록할 정도로 독립영화로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한국영화감독조합 감독상, 시민평론가상, CGV 무비콜라쥬상 등 4관왕을 차지했고, 2013년 제29회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최고상인 월드시네마 극영화 부분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기존의 4·3예술과는 다른 성취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4·3체험 세대도 4·3운동 세대도 아닌, 신예의 젊은 감독이 제주의 재래식 '돔베칼' 같은 영화를 대뜸 턱 밑에 들이댄 것이다. 그런데 그 들이댄 솜씨가 녹록지 않다. 재탕

51) 조성봉 감독은 「레드 헌트 2」에 대해 "그런데 왜 제가 2편을 만들었느냐 하면, 1편에서 아쉬운 것이 하도 많아서요. 통상적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너무 나열적이고 인터뷰도 짧고. 그래서 2편은 초토화작전에 맞추어 이 부분의 피해 상황만 집중적으로 다루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권귀숙, 『기억의 정치』, 249쪽.

52) 양조훈, 앞의 책, 203~204쪽.

53) 김경훈, 「4·3과 예술: 끝나지 않은 세월」, 제주4·3평화재단, 『4·3과 평화』 제8호, 2012, 33쪽.

> 삼탕의 4·3판에서 그만의 비틀기와 스타일로 “나는 4·3을 이렇게 그려봤어, 어때?” 하고 말이다. 그동안의 4·3작품들이 대부분 4·3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실의 충격성, 진상의 복원과 진실의 기록이라는 측면에 매진해 온 것에 반해, 그의 절제된 화면들, 역사영화의 고전적 스타일에서의 탈피 등은 그의 여러 가지 제작여건 등 상황에서 온 결과론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새롭다. 또한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 4·3작품들과는 다른 예술적 성취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54]

박경훈은 현기영 소설 「순이 삼촌」의 언어예술적 성취, 강요배 연작역사화 「동백꽃 지다」의 시각예술적 성취에 이어, 오 멸의 영화 「지슬」은 영상예술로서의 성취를 통해 4·3예술사에서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평하기도 했다. 그만큼 「지슬」의 위상과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끝나지 않은 세월」과 「지슬」 사이에 4·3과 관련된 또 다른 장편영화가 있었다. 정종훈 감독의 「꽃비」(2010)는 4·3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중에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작품이다. 이 영화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을 설정하여 지리적으로 떨어진 ‘섬’이라는 독립적 공간으로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으며, 한 여학생을 사이에 두고 학생들의 다툼은 당시사회적 대립 관계를 표현하였다. 남과 북, 미국과 일본을 대변하는 4·3의 아픈 역사를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55] 정종훈 감독 자신의 단편영화 「섬의 노을」을 장편화한 작품으로, 80분 분량의 극영화이다.

임흥순 감독의 「비념」(2013)은 4·3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함께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한 판의 시굿과도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역사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긴 도입부를 시작으로, 영화는 관광지 제주도에 봉인된 학살의 현장을 따라가며 4·3항쟁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다시 도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진 오늘의 상황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56) 함영준은 “「지슬」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업 영화의 문법을 적극적으로 차용했다면, 「비념」은 실제로 벌어진 일을 특정한 목적에 의해 배열한 다큐멘터리”라면서,「비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 임흥순 감독의 「비념」은 사뭇 냉정하다. 아마도 관광객의 신분으로 제주도를 들락거리다가 역사적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외부자의 시선이 그대로 투영되었기 때

54) 박경훈, 「영화 ‘지슬’을 보다」, 『박경훈의 제주담론1』, 각, 2013, 410~411쪽.

55) 문숙희, 「“유쾌하게, 진중하게, 먹먹하게”」, 제주4·3평화재단, 『4·3과 평화』 21, 2015, 22쪽.

56) 이경수, 「유령의 시대」, 경인일보, 2013. 5. 17.

문일 테다. 마치 그러한 사실에 대해 담담히 인정하듯, 작품은 김포공항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공항으로 착륙하는 장면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우선 스태프의 지인이 실제로 4·3 항쟁의 희생자라는 사실에서 힌트를 얻는다. 거기서부터 카메라를 들이대며 희생자들을 따라 제주도의 여기저기를 돌고 '4·3지도'를 그린다. 그 여정은 현해탄을 건너 오사카까지 이르면서 끊임없이 증언을 수집하고 목록을 만들고, 결국 제주도 전체가 4·3의 음습한 비극의 상처를 떠안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작가는 현재 제주도를 뒤덮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눈을 돌린다. 그렇게 「비념」은 작가가 제주도에 동화되는 과정, 그리고 제주도의 4·3항쟁을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과거를 따라 걷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성찰하게 된 제주의 현재를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57]

〈표 4〉 4·3영화 목록[58]

작품명	연도	시간	제작/감동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	1993	35분	4·3다큐멘터리제작단/ 김동만 감독
잠들 수 없는 함성	1995	56분	4·3다큐멘터리제작단/ 김동만 감독
레드 헌트 1	1997	67분	하늬영상/ 조성봉 감독
제주도 메이데이의 실체	1998	15분	4·3다큐멘터리제작단/ 김동만 감독
무명천 할머니	1999	20분	4·3다큐멘터리제작단/ 김동만 감독
유언	1999	20분	4·3다큐멘터리제작단/ 김동만 감독
레드 헌트 2	1999	90분	하늬영상/ 조성봉 감독
끝나지 않은 세월	2005	110분	설문대영상/ 김경률 감독
꽃비	2010	80분	유메이크필름/ 정종훈 감독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2	2013	108분	자파리필름/ 오멸 감독
비념	2013	93분	볼/ 임흥순 감독

4·3영화는 갖가지 수난을 거치면서 독립영화와 다큐영화로서 대중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완성도 높은 상업영화로도 대중들을 만날 때도 그리 멀지 않았다. 4·3이 이제 영화로서도 좋은 콘텐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7) 함영준, 「예술로 위로하기: 〈지슬〉과 〈비념〉」, 『아트인컬쳐』 2013년 5월호.

58) 권귀숙, 「4·3의 대항기억과 영상」,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130~131쪽을 참조하여 정리함.

7) 4·3음악

1980년대 들어 제주도에서도 노래 운동이 시작되었다. 1982년 한재준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졸업생들이 '숨비소리'를 결성했는데, 여기서 제주의 노래 운동이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임에서는 한동안 4·3을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문학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4·3을 형상화하고 있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는 4·3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숨비소리도 4·3노래를 만들고 공연하는 현장에 서게 되었다. 숨비소리에서 활동하던 오영민은 4·3을 노래한 자작곡 「있었지」(1991)를 발표하였다.

숨비소리에 이어 1987년에 '우리노래연구회'(당시 대표: 김민수)가 결성되면서 제주에서의 노래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 모임도 제주대학교 동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59] 노래 공연을 통해 4·3을 대중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에는 숨비소리와 우리노래연구회가 공동으로 4·3노래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다음은 당시 공연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이다.

> 노래패 숨비소리와 우리노래연구회의 4월 노래 발표회 '잠들지 않는 남도'가 1990년 4월 5일 오후 4시와 6시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하늘극장에서 열렸다. 4월제 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날 공연에서는 모두 3부로 나눠 10여 곡의 노래 발표가 이어졌다. 1부 '통곡하는 한라'에서는 「해방가」를 비롯 「한라산」, 「지리산」 등이 공연됐으며, 2부 '어둠을 뚫고'에서는 「잠들지 않는 남도」, 「불의 섬」, 「애국의 길」, 「우리들의 땅」이 발표됐고, 3부에서는 「광야에서」, 「가야 하네」, 「제주도의 노래」 등 관객과 함께 부르는 노래시간이 마련됐다.(한라일보, 1990. 4. 6)

노래발표회에서 공연된 노래들 중에는 그 무렵에 만들어진 4·3노래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치환 작사·작곡의 「잠들지 않는 남도」(1988)와 장정훈 작사·작곡의 불의섬」(1989)이 그것이다. 「잠들지 않는 남도」는 이후 4·3을 대표하는 노래가 되었는데, 발표 당시에는 작곡가의 이름이 장영준이라는 가명이었다. 「불의 섬」은 재경 제주학우문화패 '오름'에서 제작한 노래집 『불의 섬』에 수록된 노래로서, 이 곡이 처음 발표될 때의 창작자는 '오름'이란 단체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지인들에 의해 장정훈의 이름이 기록되었다.[60]

59) 이은나, 「4·3과 음악운동」,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166~167쪽.

60) 위의 글, 167~168쪽 참조.



[그림 2] 「잠들지 않는 남도」 악보

우리노래연구회의 활동은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우리노래연구회는 이산하의 글(「빨치산가」를 정리한 것)에 곡을 붙여 「불타는 섬」(1990)을, 김수열 시에 곡을 붙여 입산」(1990)을 만들었다. 「불타는 섬」과 「입산」 창작에는 당시 제주대 음악학과 재학 중이던 김성훈이 많이 기여했다고 한다.

우리노래연구회는 1991년 4·3추모제 기간 중의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굿 「헛묘」 공연에서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김경훈 시, 강동조 작곡)와 「한라산 전사의 마지막 노래」(김경훈 시, 박유미 작곡)를 선보였다.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의 경우 "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4·3에 부모 잃고 정든 마을 쫓겨나/ 이제는 땅마저 빼앗겨 버렸네"와 같이 애월읍 소길리 원동마을 사연들을 담아 노래했다.(제주신문 1991.4.14.).

우리노래연구회 회원인 박유미는 그 밖에도 자작곡 「동광마을 큰넓궤」와 김경훈 시에 곡을 붙인 「일어서는 사람들」(1991)을 만들었다. 현희순은 「동백꽃」(1991, 작사 미상),「한아름 들꽃으로 살아」(1991, 김수열 시) 등의 4·3노래를 만들었다. 우리노래연구회는 가요 중심의 '섬 하나 산 하나'와 민요 중심의 '소리왓'으로 분리되었다.

1992년 1월 최상돈을 중심으로 '노래빛 사월'이 창단되었다. '노래빛 사월'은 1997년

세 월


♩= 70
Dm(add9) A
너 무 오 랜 세 월 한 마 디 말 도 없 이
Dm(add9) A7
누 구 의 명 령 인 지 몰 라 도 잊으라 고 강 요 받 으 며
Dm(add9) A
사 상 과 이 념 일 랑 몰 랐 다 같 은 피 의 한 겨 레 일 뿐
Dm(add9) C♯dim7 Dm
제 국 주 의 가 들 어 오 고 총 칼 이 판 을 치 고
C Dm B♭ F
민 중 의 세 상 위 하 여 치 켜 든 우 리 깃 발 은
통 일 의 나 라 위 하 여 조 국 의 독 립 위 하 여
Dm C C7 F A B♭ A
매 국 노 주 둥 아 리 로 푹 도라 농 간 당 하 고 - -
눈 덮 힌 한 라 영 산 에 청 춘 에 뼈 를 묻 으 며 - -
Dm C B♭ E A7 C
누 가 분 단 을 강 요 했 는 지 누가 동 포 를 죽이라고했 는 지
Dm C B♭ Asus4 A7
제 국 과 정 권 욕 에 - 찝 싸 인 죽 숙 인 지 성 조 기에그늘 아래 피 울 음 울 던
Dm C B♭ A7
아 숨막히는세월 아 숨막히는세월 아 숨막히는세월 아 - - -
Dm C Am Dm
한 마 디 말 을 못 한 채 흘 러 버 린 세 월 -
세 월 에 묻 어 두 었 던 진 실 을 말 하 리 라 -

[그림 3] 「세월」 악보

의 '사월서곡-평화의 섬' 등 4·3 관련 공연을 수차례 가졌다. 이 노래모임의 핵심이었던 최상돈은 자작곡을 포함한 4·3노래를 많이 불렀다. 그는 4·3 관련 현장에서 그의 노래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제주의 대표적인 민중가수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최상돈이 만든 4·3노래는 아주 많다. 그는 몇 편을 제외하고는 노랫말도 직접 지었다. 「사월서곡」, 「사월출정」, 「탑동매립지에서」, 「협죽도」(박용배 글)(1991), 「한라산 이여」(고창훈 글), 「다랑쉬마을에서」, 「한내에서」(1992), 「세월」, 「헛묘의 노래」(1993),「빨리 집에 갔으면」, 「집으로 간다네」, 「평화의 섬」(1994), 「방구뀐 놈이 큰소리친다」,「사월 하늘」(오남호 시)(1995), 「섯알오름의 한」, 「백조일손」(김수열 시)(1996), 「사월에」(양애선 글), 「화석」(양애선 글)(1997) 등 1990년대 작품만도 20편에 육박한다.

1990년대 노래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은 「세월」이다. 가수 최상돈이 특유의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불러서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노래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최상돈의 4·3노래 창작은 계속되었다. 「애기동백꽃의 노래」(2001), 「꽃놀애」, 「물장올 너머」(2003), 「목시물굴 자장가」, 「산전의 노래」, 「동백꽃 피



[그림 4] 「애기동백꽃의 노래」 악보

기 전에」(2004), 「약속」, 「북받힌밭」, 「당신-올래」(2005), 「독고메리쫑칙!」, 「2006년 5월 4일」(김경훈 시), 「북촌곱을락」, 「형무소에 부는 바람」, 「4·3후손의 노래」, 「산지천」(2006), 「이어도 연유」, 「현의합장」, 「화북천의 세월」, 「억새와 해바라기」(김경훈 시)(2007), 「노란 선인장」, 「동백꽃 피면」(고희범 글)(2010), 「정뜨르 비행장」(김수열 시)(2011), 「삼면원혼해원송가」(김경훈 시)(2013), 「이덕구산전」(김경훈 시)(2014) 등이다. 이 가운데 「동백꽃 피기 전에」는 김경률 감독의 영화 「끝나지 않은 세월」의 삽입곡이며, 「애기동백꽃의 노래」는 2001년 동명으로 무대에 올렸던 제주민예총 대서사극의 주제가이다. 특히 「애기동백꽃의 노래」는 가장 널리 알려지고 불리는 노래다.

「애기동백꽃의 노래」의 다른 버전으로 「진옥의 노래」가 있다. 진옥은 서사극의 주인공 이름으로, 소위 뽕짝풍으로 편곡되었는데, 「애기동백꽃의 노래」와는 달리 2절로 이루어졌다. 「애기동백꽃의 노래」는 2001년 이후 각종 4·3 행사장에서 자주 불리면서 상당한 대중성을 확보하였다.

'노래빛 사월'에서 최상돈과 함께 활동했던 강석훈도 4·3노래를 만들었다. 좌경희의 노래말에 곡을 붙인 「어머니」(2003), 그의 작사·작곡인 「생명의 땅, 평화의 노래」(2003)등이 그것이다.

2002년 말 '노래세상 원'이 출범하였다. '섬 하나 산 하나'와 '노래빛 사월'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던 음악인들이 '노래세상 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것이었다. 하나(one)가 되어, 둥근 세상(圓)을 향해, 우리가 원(want)하는 우리의 노래를 부르자는 취지로 뭉쳤는데, 2003년 5월에 창립공연을 가졌다. '노래세상 원'은 이후 각종 4·3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해마다 가진 정기공연에서도 4·3노래를 많이 불렀다.

이 밖에 김영태 작사·작곡의 「기억」(2007), 박순동 작사·작곡의 「할머니의 4·3이야기」(2008), 「무명천 할머니」(2010), 양정원 작사·작곡의 「이어도사나」(2012) 등의 노래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김경훈 시에 김강곤이 작곡한 「이덕구산전」(2014)도 있는데, 이는 한 노랫말(시)에 2개의 곡이 붙은 특이한 경우이다.

한편, 2002년 4·3위령제에서는 「4월의 님 앞에」라는 4·3위령 조가가 새로이 만들어져 초연되었다. 제주불교합창단 '부루나'가 합창한 이 곡은 이 합창단 지휘자인 이춘기(제주대 교수)가 작사·작곡하였다. 4·3위령제에 걸맞은 조가의 필요성을 느껴 만든 곡이라고 한다. 다음은 그 가사이다.

그때 그날 사월초사흘 무엇이 잘못인지
누가 먼저인지도 모를 무모한 총검에 붙잡혀 사라져 간 님이여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절규하셨나이까.
동족간의 처참했던 비극은 이제 혼백으로 남아
이곳저곳에서 통한의 울부짖음으로 들려옵니다.
님이여 님이여 그날의 맺힌 한 어찌 풀어드리오리까.
이제 우리 힘 모아 평화의 나팔소리 울려
무덤가에 돌담 쌓고 유채꽃 철쭉꽃 심어 드릴게요.
저승길 극락의 길 정성들여 제 올리오니
이제는 갈망과 번뇌 벗어 버리고 편히 잠드소서 편히 잠드소서.[61]

김경홍 시인이 4·3과 관련된 가족사를 담아낸 『인동꽃반지』라는 시집을 읽고 만들어진 노래도 있다. 곡목도 「인동꽃반지」(2014)인데, 충북 제천 출신의 트로트가수인 영 조가 작사·작곡하였다.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이 섬을 몇 번 돌아야 나는 알까 4월의 의미를 알까
내 앞에 서있는 한라산이여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는가
푸르른 바다는 붉게 물들고 이 섬이 목 놓아 울던 그날
세월이 우릴 울게 했는가 눈물의 그 죄인은 그 누구인가
죄인은 없고 눈물만 남는가 한라산 너는 왜 답이 없느냐
아름다운 계절이 와도 슬픈 4월 비만 내린다
한라산아 말을 해다오 인동 꽃반지 그 사연을
루루 루루 루루루루루~ 루루 루루 루루루루루~
루루 루루 루루루루루~ 인동 꽃반지 그 사연을.[62]

이처럼 4·3음악은 초기에는 민중가요 형식으로 만들어지면서 4·3진상규명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4·3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좀 더 대중성을 띠는 노래들이 많아졌고, 비교적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61) 이은나, 「4·3의례와 음악」, 정근식·나간채·박찬식 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선인, 2006), 203~204쪽.

62) 「행복한 인연-영조페밀리」, http://cafe.daum.net/youngjo316.

〈표 5〉 4·3노래 목록63)

노래 제목	작사	작곡	연도	노래 제목	작사	작곡	연도
잠들지 않는 남도	안치환	안치환	1988	애기동백꽃의 노래	최상돈	최상돈	2001
불의 섬	장정훈	장정훈	1989	어머니	좌경희	강석훈	2003
불타는 섬	이산하	우리노래연구회	1990	생명의 땅 평화의 노래	강석훈	강석훈	2003
입산	김수열	우리노래연구회	1990	꽃놀애	최상돈	최상돈	2003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김경훈	강동조	1990	목시물굴 자장가	최상돈	최상돈	2004
동광마을 큰넓궤	박유미	박유미	1991	산전의 노래	최상돈	최상돈	2004
한라산 전사의 마지막 노래	김경훈	박유미	1991	동백꽃 피기 전에	최상돈	최상돈	2004
일어서는 사람들	김경훈	박유미	1991	약속	최상돈	최상돈	2005
태양은 떠도 세상은	김경훈	오영민	1991	북받힌밭	최상돈	최상돈	2005
동백꽃	미상	현희순	1991	당신-올래	최상돈	최상돈	2005
한아름 들꽃으로 살아	김수열	현희순	1991	독고메리쫑칙!	최상돈	최상돈	2006
있었지	오영민	오영민	1991	2006년 5월 4일	김경훈	최상돈	2006
사월서곡	최상돈	최상돈	1991	북촌 곱을락	최상돈	최상돈	2006
사월출정	최상돈	최상돈	1991	형무소에서 부는 바람	최상돈	최상돈	2006
탑동매립지에서	최상돈	최상돈	1991	4·3후손의 노래	최상돈	최상돈	2006
협죽도	박용배	최상돈	1991	산지천	최상돈	최상돈	2006
한라산이여	고창훈	최상돈	1992	기억	김영태	김영태	2007
다랑쉬마을에서	최상돈	최상돈	1992	이어도 연유	최상돈	최상돈	2007
한내에서	최상돈	최상돈	1992	현의합장	최상돈	최상돈	2007
세월	최상돈	최상돈	1993	화북천의 세월	최상돈	최상돈	2007
헛묘의 노래	최상돈	최상돈	1993	억새와 해바라기	김경훈	최상돈	2007
그날이 올 때까지	임미경	오영민	1994	할머니의 4·3이야기	박순동	박순동	2008
빨리 집에 갔으면	최상돈	최상돈	1994	무명천 할머니	박순동	박순동	2010
집으로 간다네	최상돈	최상돈	1994	노란 선인장	최상돈	최상돈	2010
평화의 섬	최상돈	최상돈	1994	동백꽃 피면	고희범	최상돈	2010
방귀뀐 놈이 큰소리친다	최상돈	최상돈	1995	정뜨르 비행장	김수열	최상돈	2011
사월 하늘	오남호	최상돈	1995	이어도사나	양정원	양정원	2012
섯알오름의 한	최상돈	최상돈	1996	삼면원혼해원송가	김경훈	최상돈	2013
백조일손	김수열	최상돈	1996	이덕구 산전	김경훈	최상돈	2014
사월에	양애선	최상돈	1997	이덕구 산전	김경훈	김강곤	2014
화석	양애선	최상돈	1997	인동꽃반지	영조	영조	2014
그들이 있기에	김하균	김현종	1998	*사월의 님 앞에	이춘기	이춘기	2002

63) 이은나의 기존 연구(「4·3과 음악운동」·「4·3의례와 음악」)와 최상돈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8) 4·3문화예술 축전

(1) 4·3추모제와 예술인 탄압, 그리고 사월제[64)]

6월 항쟁 이후 제주에서는 '제주청년문학회', '놀이패 한라산', '우리노래연구회' 등을 주축으로 '제주문화운동협의회'(제문협)가 결성되었다. '그림패 코지'도 창립되는 등 진보적 성향의 예술단체들이 속속 출범했다. 이들 예술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4·3행사로 처음 시도한 연합작업이 바로 1989년 4월의 4·3추모제였다. 이는 '4·3예술제(4·3문화예술축전)'의 전사격인 '사월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에는 예술 행사 외에도 진상규명 관련 행사들이 함께 열렸다.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1989년 4·3을 앞두고 '제주4·3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추모굿, 슬라드 상영, 시화전, 강연회, 추모제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 토론회, 마당굿 공연 등을 제주시민회관을 중심으로 개최했다. 그러나 일부 행사는 당국의 방해로 차질을 빚었다.

이때의 강연회에는 현기영 소설가와 김명식 시인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기영 소설가는 마포경찰서에 유치되고 있어서 김명식 시인만 강연하게 되었다. 김 시인은 4·3의 민중항쟁적 성격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로하였다.

추모굿 행사도 차질을 빚었다. 이날 추모굿에는 제주칠머리당굿 기능보유자인 안사인 심방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당국에 의해 부산의 한 호텔에 연금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후문이다. 이에 불가피하게 1982년 「녀풀이」 이후 마당굿에서 '심방'역을 맡아온 정공철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대표가 대신 굿을 집전했다.[65)]

1989년 4·3추모제를 취재했던 고종석 기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 초감제를 맡았던 수심방(심방은 무당을 뜻하는 제주도 말) 안사인 씨가 행사 이틀 전 잠적해버려 제주문화운동협의회장 정공철 씨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2일 저녁에 추모강연을 할 예정이었던 소설가 현기영 씨도 당국의 압력으로 제주도에 내려오지 못했다. 추모제 주관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매일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 관련 포스터와 현수막이 시청 직원들에 의해 철거되고 '새로운' 현수막으로 바뀌고 있다. 시민회관 앞길에는 1일 행사 주최 쪽이 내건 '근조 41주기 4·3

64) [제1부 제2장] 제1절-2. 시민단체의 4·3운동, 4. 제주4·3연구소 창립과 활동, [제3부 제1장] 제1절 참조 (편집자 주).

65) 양조훈, 앞의 책, 33쪽, 126쪽.

추모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이 현수막은 이날 오후 제주도4·3사건반공유족회 명의의 '분열을 조작하는 4·3 논리 반대한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준비위원회 쪽에 의해 원래의 것으로 돌아왔다가 3일 아침에는 제주시재향군인회 명의의 '민족반역자 문익환을 타도하자'는 것으로 바뀌기도 했다.[66]

제문협의 제주청년문학회에서는 1989년 4·3추모제 기간인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시민회관 앞마당에서 '용강마을, 그 피어린 세월'이란 이름으로 4·3시화전을 가졌다. 광목에 매직으로 시를 써서 전시한 것이었는데, 이 행사는 처음으로 시도된 공개적인 4·3시화전이었다. 전시 작품들은 곧 경찰에 압수되었다.[67]

제주청년문학회에서는 또한 4월 1일에 제주시 세종미술관에서 '4·3민족문학제'를 주최하였다. 1일 하오 7시 세종미술관에서는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청년문학회가 주최한 '4·3민족문학제'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김명식(시인) 김석희(소설가) 문무병(굿 연구가) 한림화(소설가)를 비롯, 청년문학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날 문학제에서 양성자는 국내에서 발간된 4·3관련 문학 작품을 논하는 가운데 이산하 작 장시 「한라산」의 비현장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주도민과 빨치산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어떻게 500여 명 정도의 빨치산이 제주도민과 동일시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제주신문, 1989. 4. 3).

그런데 행사 전부터 방해를 했던 당국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그 내용을 문제삼았다. 경찰이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소속 놀이패 한라산과 제주청년문학회에 대해 뒤늦게 수사에 나섰던 것이다. 다음은 당국의 탄압에 대한 당시 제주문화운동협의회의 입장이 잘 드러난 글이다.

1957년, 마지막 빨치산인 오원권이 생포됨으로 해서 4·3은 끝난 것인가?

아니다.

41년 동안 숨죽여 쉬쉬하며 살아왔던 그 악몽의 기억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4·3은 계속되고 있다. 4·3의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과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계속 맞대결하고 있는 한 4·3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조국의 자주적·평화적 통일이라는 과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 한 4·3은 계속되고 있다. 4·3이 끝나는 날은 바로 해방의 날이요 통일의 날이다.

그러므로 4·3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66) 고종석, 「'비극 뿌리' 드러낸 제주 두 얼굴」, 한겨레, 1989. 4. 7.

67) 양조훈, 앞의 책, 125쪽.

1. 지난 4월 1일에서 3일까지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렸던 '41주기 4·3추모제' 행사에 참가했던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소속 '제주청년문학회'와 '놀이패 한라산'에 대한 당국의 수사도 4·3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제주문화운동협의회는 1987년 8월에 창립된 이래, 퇴폐적이고 상업적인 매판문화를 척결하고 건강한 삶의 문화, 민족 전통문화를 발굴·보급하는 데 힘써 왔다. 이번의 4·3추모제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노래 발표, 시전시, 마당극 공연을 가져 참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대중들로부터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제주경찰서(대공과)는 4·3추모제 행사 기간에 제주시민회관 입구에 전시했던 제주청년문학회의 공동창작시와 4·3을 다룬 개별 창작시를 문제삼아 오승국 대표 등 회원 전원을 연행, 조사하였다. 뒤이어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극 '4월굿 한라산'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문제삼아 대표 등 3명을 연행 조사하였고, 회원 전체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 확대 수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당국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제주청년문학회가 전시한 시 몇 작품과 놀이패 한라산의 공연 내용 가운데 4·3 당시 불리워졌던 제주도 빨치산가와 무장대 선언문 등이다. (중략)

3.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극 중에 도입한 것은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입산 공비들을 미화·찬양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마당극으로 재현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삽입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번 공연을 통해 4·3을 공산 폭도들의 음모라는 극우적, 이데올로기의 그릇된 시각을 극복하고 '항쟁과 수난'으로 4·3을 보았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마당극 줄거리도 '4·3의 실체와 진상에 접근해 보려는 시발점으로, 당시에 희생된 영령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작품이다.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념의 잣대로 시와 공연 예술행위뿐만 아니라 '4·3에 대한 논의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번 '4월굿 한라산'을 본 2000여 관객들로 설문지 응답 결과,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동조하는 내용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술에 대한 평가는 예술을 감상하는 대중의 몫이지, 사법처리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4. 문익환 목사와 정주영 회장의 방북의 성격을 논하면서 당국과의 사접협의 유무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정부 당국의 논리로 보더라도 이번의 '한라산 공연'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다. 이번의 공연은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한 공연법에 따라 공연 신고, 공연자 등록, 대본 제출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은 합법적 공연이며, 정부당국(문공부)이 공연을 허가한 것인데, 뒤늦게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저의를 알 수 없는 자가당착의 논리일 뿐이다.

그리고 지난 6월 중에 KBS에서 방영된 바 있는 이병주 원작의 '8부작 드라마 지리산'에서도 한라산에서 사용한 같은 노래가 삽입되어 있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빨치산가뿐만 아니라 인민공화국의 깃발, 토벌대에 의한 양민 대량 학살, 마지막 빨치산인

'순이'의 완강한 전향 거부 등이 전파를 통해 시청자들의 가슴에 강한 인상을 새겨주다. 그러나 그 드라마를 본 어느 누구도 '지리산'을 공산주의를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좌경, 용공이라고 하지 않았다. '한라산' 공연을 본 2천여 관객들처럼 빨치산가나 인공기 등은 드라마 중에 부분적으로 삽입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소재일 뿐이지, 그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리산'과 '한라산'은 역사적으로 함몰되어 있는 부분을 각각 드라마와 연극을 통해 발굴, 복원해 내는 작업의 일환이다. '지리산'과 '한라산'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항쟁과 수난'의 내용을 각각 드라마와 공연의 형태로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한라산'을 문제삼는 것은 '지리산'을 문제삼는 것이며, 1945년 이래의 해방공간의 역사를 함몰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사상과 문학예술의 창작행위를 억압 위협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증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5.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이제 41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4·3의 진상규명 및 추모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역사를 파묻으려는 반역사적인 작태일 뿐이다. 이제야, 부끄럽게나마 조촐한 추모제를 개최하는 현실에서, 그 추모제 행사를 문제삼는 것은, 진상규명과 추모에 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학계·언론계·예술계 등 각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4·3진상규명 운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참된 민족문화를 건설하려는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퇴폐적이고 독소적인 매판문화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따라서 당국은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등에 대한 문화예술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주문화운동협의회는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민족문화를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단체와 더불어 더욱 활발한 진상규명에 노력할 것이며 문화예술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4·3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68]

당시 4·3추모제를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협박전화가 날아들었고, 도심의 거리에는 '민심혼란 추모제는 원혼마저 노발한다'는 우익 단체들의 현수막이 나붙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연된 제주청년문학회와 놀이패 한라산의 작업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공연 예술적 방법으로 진실규명을 웅변한 것이었다. 결국 그것이 행사 후 예술인 탄압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다음은 이에 대해 허영선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제주의 문화예술공연단체가 지난 '4·3추모제' 행사로 벌였던 행사내용에 대해 뒤늦게

68) 김경훈, 「4·3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월간제주』 1989년 7월호.

경찰이 제동을 걸고 있어 4·3주제 창작 예술계에 한차례 논란의 회오리가 일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최근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소속 놀이패 한라산(대표 김경훈)이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시민회관무대에서 '41주기 4·3추모제'의 일환으로 올렸던 마당굿 '4월굿 한라산'에 대해 공연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뒤늦은 수사에 나섰다. 시비가 일고 있는 마당굿의 내용은 셋째·넷째 마당에 나오는 「빨치산가」와 4·3무장대 선언문 부분으로 이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올린 것은 입산공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문제가 된 「빨치산가」(혹은 「적기가」)는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깃발을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그 밑에 전사는 용감한 전사/ 더운 피 흘리며 말하던 동무/쟁쟁히 가슴에 울리어 온다/ 동무야 잘 가거라 원한의 길을…"이라는 가사로 당시 전국적으로 불리웠던 노래.

또 「무장대 선언문」은 "시민동포들이여! 경애하는 부모형제들이여! '4·3' 오늘은 당신님의 아들딸 동생은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네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궐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서 셋째마당 첫 부분에서 인용됐다.

이 글은 4월 3일 무장대가 행동을 개시하면서 뿌린 '삐라'의 일절로 좌익 활동을 하다가 4·3 무렵 일본으로 피신한 김봉현·김민주가 쓴 『제주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슬로건은 무장투쟁지도부의 상징적인 구호로 여러 책자에서 인용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공연 내용을 올린 동기와 경위를 파헤치기 위해 공연 2개월이 지나 부랴부랴 관련 대표 3명을 소환, 연행 조사했고 지난 9일에는 다른 회원 모두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나 제문협은 당국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 공연을 한 것인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제문협은 이에 대해 "제주경찰서(대공과)에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한 공연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공연신고·공연자등록·대본제출 등)을 치른 합법적 공연임에도 불구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하는 저의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하고 있다.

한라산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서 열린 제2회 민족극한마당에 참가, "4·3의 실체와 진실에 접근해보려는 시발점으로 당시 희생된 영령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작품"이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4·3행사 시비는 이보다 앞서 같은 기간 제문협 소속 제주청년문학회가 만든 공동창작시와 4·3을 다룬 개별창작품들을 전시했던 '4·3문학제'에 대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4월 26일 청문회 회장 오승국 씨가 임의 연행된 것을 시작으로 27일과 30일에

는 또다시 회원들이 연이어 연행돼가는 등 5월 20일까지 조사가 있었다.

청문회는 여기서 조사받았던 내용들은 4·3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산주의 찬양·동조의 내용이 아니냐, 시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등이었다고 하고 4·3시와 관련 자행된 탄압으로서 이는 사상과 문학예술에 대한 창작 행위를 억압·위협하는 것이며 역사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놀이패 한라산 마당극 사건은 이에 대한 창작문학인들의 싸움과 함께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69]

이처럼 첫 4·3추모제는 역경 속에 치러졌다. 특히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런 속에서 '4·3예술제'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4·3행사부터는 '4월제'라는 이름으로 치러졌다. 제문협을 비롯한 10개 단체로 꾸려진 '4월제공동준비위원회'가 주최한 1990년 4·3행사는 4월 1일부터 7일 동안 열렸다.

4월 5일 오후에는 노래모임 숨비소리와 우리노래연구회가 참여하는 노래발표회 '잠들지 않는 남도'가 하늘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되었다. 「해방가」·「잠들지 않는 남도」·「한라산」 등 10여 곡이 발표되었다.

이어 6일과 7일에는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굿 「백조일손」이 같은 자리에서 세 차례 공연되었다. 앞풀이와 4개의 마당으로 이루어진 「백조일손」은 14·15일 광주에서, 20·21일 부산에서 초청공연을 갖기도 했다.

4월제의 일환으로 치러진 1990년 4·3문학제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4월 1일 저녁 가톨릭회관에서는 제주청년문학회가 주최한 '4·3문학 이야기마당'이 열려, 함승보가 '4·3문학의 흐름과 과제'를 발표하고, 현길언·오성찬·임헌영·문무병·한림화 등 초청문인들이 4·3문학에 대해 논했다. 세종미술관에서는 3일부터 5일까지 4·3시화전을 개최했는데, 제주청년문학회의 공동창작품인 960행의 장시 「용강마을 그 피어린 세월」을 비롯해 김명식·김용해·문무병·김수열·오승국·강덕환·김경홍·김경훈 등의 시들이 전시되었다.

1991년 사월제는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문화 행사로는 마당극 공연과 시화전 등이 있었다. 6일과 7일 제주시 적십자회관 강당에서는 놀이패 한라산의 「헛묘」가 네 차례 공연되었다. '4월 시화전'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대, 간호보건전문대(현 한라대), 제주시내 해태다방, 서귀포시내 상미전시실 등지에서 열렸다. 특히 이 시화전에는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청년문학회, 글왓Y, 신세대, 글터, 바탕동인 등으로 구성된 제

69) 허영선, 「'4·3추모제' 단체에 뒤늦은 서리: 제문협 놀이패 한라산·제주청년문학회 수사령」, 제주신문, 1989. 6. 14.

주 지역 문학유관단체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17명의 시 23편이 선보였다. 7일 저녁에는 YMCA 프로그램실에서 '4·3의 올바른 문학적 형상화에 관하여'를 주제로 출품자와의 만남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1992년의 사월제는 4월 2일부터 열렸다. 2일에는 제주대학교 단과대학문화패협의회가 주최하는 '4·3집체극'이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공연되었고, 3일의 추모제에서는 열림굿과 추모노래 공연(노래패 섬하나 산하나, 노래빛 사월) 등이 있었다.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굿 「꽃놀림」 공연은 6일과 7일 부산에서 열린 민족극한마당 참가 후 11일과 12일 제주대학교에서 펼쳐졌다. 한편, 사월제와는 별도로 강요배 화백의 역사그림전 '제주민중항쟁사'가 4월 3일부터 11일까지 서울의 학고재에서 열린데 이어 21일부터 27일까지 제주시 세종미술관에서 열려 큰 관심을 모았으며, 제주극협에서는 1991년 대한민국문학상 수상작인 장일홍의 「붉은 섬」을 김중효 연출로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에서 공연하였다.

1993년의 사월제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1일 오후 5시와 7시에는 노래빛 사월이 주관하는 4·3추모노래 공연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불의 섬」, 「협죽도」 등을 영상과 함께 들려주었다. 제주청년문학회에서는 4월 1일과 2일에는 제주대에서, 3일부터 5일까지는 제주시내 보뜨르 커피숍에서 각각 4·3추모 시화전을 가졌다.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굿 「살짜기 옵서예」는 17일과 18일 제주시민회관에서 공연되었다.

(2) 제주민예총의 4·3문화예술 축전[70)]

1994년 2월 26일 제주민예총이 창립되었다. 2012년에 독립법인이 되면서 '사단법인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으로 바뀌었는데(2016년에는 '사단법인 제주민예총'으로 다시 바뀌었음),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가 출범 당시의 공식 명칭이었다. 초대 지회장은 굿연구가이면서 시인인 문무병이 맡았고, 사무총장은 김상철이었다.

제주민예총은 출범 직후부터 사월제를 문화예술의 차원에서 계승하는 '4·3예술제'를 시작하였다. 제주민예총은 1994년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31일 저녁 초감굿(전야제)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첫 4·3예술제를 개최한다고 선언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제주민예총은 "4·3의 진상규명과 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 지역의 뜻있는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은 꾸준히 예술적 형상화 작업을 해왔다."고 전제하고 "이전 작업의 성과를 계

70) [제1부 제2장] 제1절-4. 시민단체의 4·3운동, 4. 제주4·3연구소 창립과 활동, 제2절-1. 4·3예술 활동의 수난과 성과 참조(편집자 주).

승한 제1회 4·3예술제가 도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도민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라일보, 1994. 3. 30).

이 행사의 명칭은 몇 번의 변화가 있었다. 제1회와 제3회의 경우 '제주4·3예술제'였으나 제2회와 제4회 이후로는 '4·3예술제'가 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제8회부터는'4·3문화예술제'로 바뀌었고, 2007년 제14회부터는 오늘날의 이름인 '4·3문화예술축전'으로 다시 바뀌었다. '제주'를 빼고, '문화'를 추가한 데 이어, '제'를 '축전'으로 바꾼셈이다. 지역성을 뛰어넘으면서, 좀 더 폭넓은 축제를 지향하고, 추모에 머무르지 않는 역동적인 의미의 정신 계승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명칭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1회 제주4·3예술제는 1994년 3월 31일 저녁 7시부터 제주문예회관 놀이마당에서 펼쳐진 초감제를 시작으로 개막되었다. 초감제는 정공철의 집전으로 치러졌으며, 영감놀이와 군웅놀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4월 1일과 2일에는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노래패 '섬하나 산하나'의 노래 공연에서는 「'섬은 고운 노래를 부른다-진혼(鎭魂)'이 열려」, 「입산」, 「동광마을 큰넓궤」 등의 창작곡들을 선보였다. 다른 노래패인 숨비소리에서도 29일과 30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을 가졌다. 탐라미술인협의회가 주관한 미술제에서는 전시회와 미술 강연이 마련되었다. 1일부터 8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전시실과 세종갤러리에서 '닫힌 가슴을 열며'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서는 강요배·박경훈 등 44명의 출품작 60여 점이 선보였으며, 강연에서는 '민족미술과 지역미술'(원동석), '4·3과 미술'(김유정)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문학제는 9일 가톨릭회관에서 '4·3문학의 밤' 형식으로 열렸는데, 여기서는 회원들의 시 낭송과 현기영의 '4·3항쟁과 문학'을 주제로 한 강연 등이 펼쳐졌다. 놀이패 한라산의 마당굿 「4월」은 16·17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네 차례 공연되었다. 한라산 회원들의 공동 창작과 공동 연출이었다.

명칭에서 '제주'를 뺀 1995년의 제2회 '4·3예술제'에서는 행사의 주제를 '섬의 하나됨을 위하여'로 내걸었다. 3월 31일 제주문예회관 놀이마당에서 전야굿은 '산신놀이'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 행사는 제주의 신들과 영혼을 청하는 초감제, 사냥하는 모습을 묘사한 산신놀이,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나눠먹는 분육(分肉), 신들을 놀게 하고 참여자들이 함께 즐기는 석살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위원회별 행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문예회관, 세종갤러리, 가톨릭회관 등지에서 펼쳐졌다.

1996년 제3회 제주4·3예술제는 예전에 한 달 동안 펼쳐졌던 행사 기간을 4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조정하여 일주일여 동안 집중적으로 개최하였다. '섬이여, 사월의 하늘이여!'를 주제로 내건 3회 예술제는 4·3의 예술적 형상화뿐만 아니라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를 강조한 점이 이채롭다. 31일의 전야 행사도 큰 변화가 있었다. 탑동 해변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긴 전야제는 길놀이, 초감제, 노래와 시, 민요, 풍물판굿, 씻김굿, 꽃놀림 등으로 이어지면서 종합 공연의 형식으로 치러진 것이다. 문학제, 미술제, 연극제 행사는 해변공연장 전시실, 세종갤러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등지에서 열렸다.

1997년 제4회 4·3예술제부터는 행사 명칭에 '제주'가 완전히 빠졌다. 31일 전야제는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열렸고, 다른 행사들도 예년과 비슷하게 치러졌다. 음악제가 전년도와 달리 4·3예술제 기간에 함께 열렸으며, 2회부터 내세우던 전체 행사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1998년 제5회 4·3예술제는 4·3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치러짐에 따라 다소 다른 방식의 행사가 되었다. 제주민예총에서는 4·3 유관단체들과 연대하여 '제주4·3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무자·기축년 역사맞이 해원상생의 큰 굿판'을 기치로 내걸고 다른 기념사업들과 함께 예술제를 거행하였다. 특히 '4·3 50주년 도민해원상생굿'은 4월 1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한라체육관에서 공연되었으며, 진아영 할머니의 아픔 등을 통해 참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본풀이」가 1년여의 제작을 거쳐 상영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신산공원의 '4·3해원방사탑'도 도민 한 사람이 한 돌 쌓기 방식으로 이때 세워졌다.

1999년 제6회 4·3예술제에서 눈여겨볼 만한 작업은 탐미협이 준비한 미술제 '보이지 않는 손, 보는 눈'이었다. 4월 3일부터 9일까지 제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4·3에서 미국의 역할과 힘을 상징한다면 '보는 눈'은 민중 또는 예술가의 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캔버스만이 아니라 VTR, 멀티슬라이드 액정비전 등 다양한 매체와 포토이미지가 융합하여 미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노력을 기울인 전시였는데, 모든 작품은 집단창작으로 작업되었다.

2000년 제7회 4·3예술제는 4·3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열리는 예술제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제7회 행사에서는 특히 '기억에서 부활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프레제주4·3영화제'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4월 1일부터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무명천 할머니」, 「다랑쉬굴의 침묵」, 「레드 헌트2」 등 4·3영화만이 아니라, 「오키나와전의 증언」, 「르완다 대학살」, 「대만 2·28 이렇게 해결됐다」 등 세계 도처에서 자행된 제노사이드의 양상들을 보여줌으로써 연대의 중요성과 더불어 4·3 해결의 방향성을 시사해 주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2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영상 심포지엄에는 한국·대만·일본의 다큐 감독들이 참가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영화적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2001년 제8회 행사부터는 참여 범위와 행사 내용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예술제’라는 명칭을 ‘문화예술제’로 바꾸는가 하면, 제주민예총 조직 내부에서도 4·3문화예술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어 운영하였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인접 장르의 작업을 한데 모아 4·3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생산하자는 논의를 했다. 그 대표적인 작업이 연행예술인들의 공동 작업인 「애기동백꽃의 노래」였다. 「애기동백꽃의 노래」는 놀이패 한라산이 지속적으로 작업해 온 4월굿을 바탕으로 제주민예총의 연행분과인 민요패 소리왓, 풍물굿패 신나락 등이 더불어 예술적 역량을 결집한 작품이었다. 석 달에 걸친 준비 작업과 40명이 넘는 출연진이 등장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인 공연으로 이어질 수 없었음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작품의 주제가인 「애기동백꽃의 노래」(최상돈 작사·작곡)가 4·3을 대표하는 노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다.[71)]

2002년 제9회 4·3문화예술제는 ‘들꽃 피는 이 사월에’라는 제목 아래 다랑쉬굴 유골 발굴 10주년 기념으로 열렸다. 행사의 기획과 진행은 ‘제9회 4·3문화예술제사업단’이맡았으며, 사업단에서 ‘역사맞이 거리굿’과 ‘해원상생굿’ 그리고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 기획전을 직접 꾸렸다. 특히 구좌읍 세화리 소재 다랑쉬굴 현장에서 열린 해원상생굿은 ‘살아남은 자들의 흰 그늘’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져 유족과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제주민예총의 해원상생굿은 이때부터 4·3의 현장에서 원혼들의 넋을 해원하는 굿판 형식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제10회 4·3문화예술제는 ‘해원상생의 흙가슴으로’라는 제목 아래 진행되었다. 열 번째를 맞는 4·3문화예술제 기념행사로는 ‘4·3미술 10년의 역사전’이 열리고, 기념전 작도록도 간행되었다. 이때의 해원상생굿은 대학살의 현장인 조천읍 북촌리에서 열렸다. 놀이패 한라산에서는 북촌리 학살 사건을 다룬 마당극 「꽃놀림」을 현장에서 공연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었다. 민요패 소리왓에서는 4·3소리판굿 「웡이야 자랑아」를 공연하였다.

2004년 제11회 행사는 ‘4·3, 그 희망의 시작’을 주제로 열렸다. 이 4·3문화예술제에서는 4·3후유장애인 생애사 아카이브전 「몸에 새긴 역사의 기억」으로 무명천 할머니를 비롯한 후유장애인들의 아픔을 재조명한 점이 큰 주목을 끌었다. 해원상생굿은 잃어버린 마을인 제주시 화북마을의 곤을동에서 진행되었다. 이때는 행사 포스터에 ‘4·3항쟁 58주년’으로 표기함으로써 제주민예총이 예술제에서 처음으로 항쟁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71) 김수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제주문화예술』 27(제주민예총, 2013), 12쪽.

‘질곡의 세월을 넘어 평화의 대지 위로’를 내세운 2005년 제12회 4·3문화예술제에서는 4·3전야제 행사를 새로이 기획하였다. 거리굿은 전야제 행사와 함께 신산공원에서 열렸고, 해원상생굿은 표선면 표선리 한모살백사장에서 펼쳐졌다. 특히 이 4·3문화예술제에서 주목할 점은 제주작가회의에서 주관하는 전국민족문학인제주대회가 행사의 일환으로 치러졌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200여 명의 민족문학작가회의(현재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제주에서 ‘을사늑약 100년 을유해방 60년, 그 질곡의 세월을 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기치 아래 제14회 전국민족문학인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된 것이었다.

2006년 제13회 4·3문화예술제는 ‘봄바람 꽃물결로 부활하는 생명들’이라는 제목 아래 펼쳐졌다. 이때부터는 봉개동 평화공원의 범도민위령제에 앞서 열리는 식전문화행사가 4·3문화예술제 행사의 일환이 되었다. 찾아가는 현장위령제인 해원상생굿은 조천읍 선흘리 목시물굴 앞에서 열렸다.

2007년 제14회 행사는 4·3문화예술축전으로 ‘축전’임을 내세웠다. 그리고 2004년부터 3년 동안 포스터에 내걸었던 ‘4·3항쟁’은 ‘항쟁’을 빼고 ‘4·3’으로 다시 바뀌었다. ‘상생의 바람결을 타고’라는 주제 아래 열렸는데, 60주년을 준비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4·3 그 의로움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역사맞이 거리굿은 강요배 화백의 연작 「동백꽃 지다」를 거리에서 재연하는 방식으로 관덕정 광장에서 펼쳐졌다. 이때부터 놀이패 한라산이 주관하는 4·3평화인권마당극제가 시작되었고, 평화음악제도 열리게 되었다. 해원상생굿은 애월읍 어음2리 빌레못동굴 앞에서 열렸다.

2008년 무자년은 4·3 60주년을 맞는 해로서, 4·3문화예술축전의 주제는 ‘기억 60년! 불어라, 해원상생의 꽃바람’이었다. 제주민예총에서는 60주년에 걸맞은 선언문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 평화선언문을 마련했으며, 이는 4월 2일 전야제에서 4·3유족회장 등에 의해 낭독되었다. 제주시청 광장은 전야제를 시작으로 많은 4·3문화예술축전이 열리는 주 무대가 되었다. 4·3 50주년에 한라체육관에서 했던 큰굿을 제주시청 광장에서 다시 무대에 올렸는데, 이중춘, 김윤수, 이용옥, 서순실 등 제주의 대표적인 심방들이 집전하였다. 제주시청 광장에서는 도민문화한마당을 마련하여,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부스에서 시민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 평화축제도 시청광장에서 진행하였는데, 공연과 사생대회, 퀴즈, 퍼즐게임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기억과 상흔을 넘어 평화를 향해’를 주제로 열린 국제문학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최고 시인 탄타오를 비롯하여 오키나와, 대만 등의 작가를 초청하여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시대를 지향하는 문학적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해원상생굿은 남원읍 의귀리 마을회관 마당에서 열렸다.

2009년의 제16회 4·3문화예술축전은 '피어나라 평화의 꽃'을 주제로 열렸다. 축전의 주요 무대는 제주문예회관 마당으로 옮겨졌다. 평화음악제, 청소년문화축제, 도민문화한마당, 4·3연합공연이 모두 문예회관 마당에서 펼쳐졌다. 해원상생굿은 정드르비행장[제주국제공항] 학살 터에서 진행되었다.

2010년 제17회 4·3문화예술축전 '침묵을 흔들어 평화의 너울로'라는 주제 아래 펼쳐졌다. 보수 단체들의 4·3 흔들기 작업 등으로 인해 시대 분위기가 어두운 탓에 행사 포스터도 아주 어두워졌다. 4·3마당극제에 참여하려던 '달오름' 극단 소속 재일 한국인 3세 공연팀의 남녀 주인공이 조선 국적이어서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제주4·3 의식주 체험 한마당'이 제주문예회관 마당에서 열렸으며, 해원상생굿은 성산포 터진목에서 진행되었다.

2011년 제18회 행사의 이름은 다시 4·3문화예술제로 바뀌었다. '움트다 만 생명의 봄날'이라는 행사 제목은 4·3을 둘러싼 시대의 분위기가 여전히 어두웠음을 짐작하게 한다. '가매기 모른 식게'라는 주제로 열린 미술제는 아주 특이했다. 이덕구산전에서 설치미술을 하고 4·3미술제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청소년평화예술제는 간드락소극장 등의 장소를 활용하여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였다.

2012년 제19회 행사 이름은 다시 4·3문화예술축전으로 환원되었다. 전체 행사의 주제는 '미여지벵뒤 나비로 바람으로'였다. 해원상생굿의 장소는 강정마을이었다.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관심이 집중된 곳이기도 했거니와 4·3피해가 적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제주작가회의의 문학기행도 강정마을을 찾아갔다.

2013년의 4·3문화예술축전은 20번째 행사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 산 위에 아름다운 꽃그늘 아래: 4·3예술 20년, 역사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한 이 축전에서는 '4·3문화예술축전 2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수열 시인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는 발제를 하고, 김동윤의 진행으로 박찬식, 진선희, 최상돈, 한진오가 토론을 벌였다. '저 귓것들의 삶'을 주제로 열린 사진전은 20년 동안 제주민예총의 주역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점검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제21회 4·3문화예술축전은 '역사에 유배된 자들을 위한 연가'라는 제목 아래 진행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행사는 해원상생굿이었다. 바로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되는 비극이 있었고, 그 사흘 뒤인 19일에 해원상생굿이 열렸다. 공교롭게도 행사 장소는 세월호가 입항하기로 했던 곳에 인접한 제주항 제2부두 방파제였다. 4·3 때에 수장된 넋을 위무하는 가운데 세월호에 탔던 생명들이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굿을 마련하였다. [집필자 김동윤]

[참고 자료]

□ 문헌

강용준, 「또 하나의 진혼곡-'느영 나영 풀멍 살게'를 보고」(한라일보, 1995. 8. 29)

고종석, 「화제의 무대: 4·3항쟁 새값 매긴 '잠들지 않는 남도'」(한겨레, 1989. 3. 3)

고종석, 「'비극 뿌리' 드러낸 제주 두 얼굴」, (한겨레, 1989. 4. 7)

권귀숙, 「4·3의 대항기억과 영상」,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2006.

김경훈, 「4·3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월간제주』 1989년 7월호.

김경훈, 「4·3과 예술: 끝나지 않은 세월」, 제주4·3평화재단, 『4·3과 평화』 제8호, 2012.

김경훈, 「4·3 정신 사월굿으로 해원하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제49호, 2014.

김남석, 『오태석 연극의 미학적 지평』, 연극과 인간, 2003.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김동윤,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김동윤, 「"4·3을 쓰면서 울기도 했어"」(현기영 대담), 『소통을 꿈꾸는 말들』, 리토피아, 2010.

김수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제주문화예술』 27, 제주민예총, 2013.

김유정, 「광기의 역사에 쓰러진 토민들에게 바치는 헌사」, 박경훈, 『바람길 혼비 내리고』, 파피루스, 1998.

김유정, 『통사로 보는 제주 미술의 역사』, 파피루스, 2007.

김유정, 「기획의 글」, 『새 림-세계의 공감전』, 탐라미술인협회, 2016.

김종민, 「재일작가 김석범 씨 제주대서 강연」(제주신문, 1988. 11. 16)

김종민, 「43년 만에 고향 찾은 『화산도』 작가 김석범 씨」(제주신문, 1988. 11. 18)

김종민, 「4·3영혼 위로 한풀이 굿판 열려」(제주신문, 1988. 11. 21)

김종민, 「제주를 찾은 서사시 「한라산」의 시인 이산하 씨」(제주신문, 1988. 12. 26)

김현돈, 「강요배론」, 『미술의 실천, 상생의 미학」,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문숙희, 「"유쾌하게, 진중하게, 먹먹하게"」, 제주4·3평화재단, 『4·3과 평화』 21, 2015.

박경훈, 「미술이 만난 역사-제주4·3 미술운동의 역사와 현재」,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박경훈, 「영화 '지슬'을 보다」, 『박경훈의 제주담론1』, 각, 2013.

박찬식, 「4·3극과 역사적 기억」,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송상일, 「기록과 용기」, 『시대와 삶』, 문장, 1979.

양조훈, 『4·3 그 진실을 찾아서』, 선인, 2015.

이경수, 「유령의 시대」(경인일보, 2013. 5. 17)

이은나, 「4·3과 음악운동」, 나간채·정근식·강창일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이은나, 「4·3의례와 음악」, 정근식·나간채·박찬식 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이현모, 「재일 제주출신 작가 김석범 씨 고향방문기」(제주신문, 1989. 7. 14)
제대신문사, 『제대신문 축쇄판 2』, 1987.
제주4·3연구소, 『제주4·3 신문자료집 Ⅰ·Ⅱ』, 2002.
진선희, 「질곡의 세월 품은 흔적 고스란히」(한라일보, 2006. 3. 30)
탐라미술인협회, 「4·3미술제 연혁」, 『다시 10년의 4·3미술』,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탐라미술인협회, 2013.
함영준, 「예술로 위로하기: 〈지슬〉과 〈비념〉」, 『아트인컬쳐』 2013년 5월호.
허영선, 「'4·3추모제' 단체에 뒤늦은 서리」(제주신문, 1989. 6. 14)
허영선, 「"이덕구의 나쁜 모습만 그려냈었지요"」(제민일보, 1992.1.27.)

□ 인터넷
신동호, 「문학 뒤 역사: 변죽을 쳐서 복판을 울리다」, http://blog.kdemo.or.kr.
「행복한 인연-영조페밀리」, http://cafe.daum.net/youngjo316.

□ 신문
제민일보, 1991. 4. 4, 11. 7, 1992. 2. 7.
제주신문, 1988. 9. 9, 1989. 4. 3, 1991. 4. 14.
중앙일보, 1988. 6. 22.
한겨레, 1988. 7. 12, 1988. 11. 6, 1992. 1. 9.
한라일보, 1990. 4. 6, 1994. 3. 30.

□ 자료·증언
강덕환(시인, 제주도의회)
강봉수(시인, 제주시청)
강정효(사진작가, 제주민예총 이사장)
김건일(한라일보사 사장)
김계춘(제주매일 주필)
김경훈(시인, 극작가)
오승국(제주4·3평화재단)
최상돈(가수)